

체크체크

| 국어 2-1 |

정답과 해설

천재 노미숙 교과서

국어	02
서술형 특강	29
시험 대비 문제집	33
실전 모의고사	45

1 | 문학의 눈

01 시의 목소리 _ 엄마 걱정

바로바로 개념 체크

p.08

1 화자 2 ① 3 ②

- 1 시의 말하는 이를 화자 또는 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고도 한다.
- 2 말하는 이는 시 안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 3 말하는 이의 관점은 시의 주제, 분위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 지 시의 운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체크

p.09

1 ⑤ 2 ⑤ 3 ④

- 1 1연의 '어둡고 무서워'에 빈방에서 엄마를 혼자 기다리며 무서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2 '윗목'은 화자의 어린 시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로, 차갑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을 의미한다.
- 3 이 시에는 어린아이가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며 외롭고 쓸쓸해하는 장면과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이 나타난다.

소단원 마무리

p.10

서글픔, 엄마, 외로움, 엄마, 윗목



학습 활동 엮보기

p.11-12

숙제, 배춧잎, 회상, 빈방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1-12

1 ② 2 ⑤ 3 ⑤ 4 ⑤ 5 ② 6 분위기

- 1 '해는 시든 지 오래'는 엄마가 시장에 간 뒤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어둡고 외로운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2 이 시에서 어린 시절의 '나'가 어머니의 처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 3 이 시는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4 말하는 이의 정서는 시의 분위기, 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이 시에서 어른이 된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6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 속 상황과 정서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 시의 분위기와 주제도 달라진다.

01 시의 목소리 _ 고향

소단원 체크

p.13

1 ③ 2 ② 3 ㉠, ㉡, ㉢

- 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타향에서 만난 의원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움, 정겨움, 따스함 등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 2 말하는 이의 고향은 '평안도 정주'임을 알 수 있으나, 의원은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 아니라 그곳 출신의 아무개 씨를 알 뿐이다.
- 3 이 시는 '평안도 정주'라는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래 같은 상을 하고'와 같이 비유법을 사용하여 의원의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말하는 이의 독백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소단원 마무리

p.14

아무개 씨, 아무개 씨, 타향, 그리움



학습 활동 엮보기

p.15-16

의원, 손길, 그리움, 고향, 상실감

생각 모으기 ○, x, ○, 지시, 부탁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5-16

1 ⑤ 2 ③ 3 ④ 4 ① 5 ③ 6 ①

- 1 화자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타향(북관)에서 지내던 중 몸이 아파서 의원을 찾아간 것이다.
- 2 아무개 씨는 '나'와 의원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아무개 씨로 인해 '나'와 의원은 친근감을 형성한다.
- 3 화자는 의원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의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4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 5 정지용의 <고향>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와 고향을 바라보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6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온 말하는 이는 고향을 바라보며 상실감,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7-18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아무개 씨 09 ⑤ 10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보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상실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 01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윗목’은 아궁이의 불길에 잘 닿지 않아 차가운 곳으로,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은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03 ㉠에는 빈방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모습을 ‘찬밥’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너를 보는 것’을 ‘달무리 보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에도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은유법 ② 도치법 ④ 의인법 ⑤ 설의법

- 04 이 시는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쓸쓸하고 서글픈 어조로 낭송하는 것이 가장 어울린다.
- 05 말하는 이는 어른이 되어 외롭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6 이 시는 인물, 사건,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 07 말하는 이는 의원에게 진료를 받던 중에 자신의 아버지(아버지로 섬기는 이)가 의원의 막역한 친구임을 알게 되고 친근감을 느낀 것이지, 의원을 고향 어른으로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다.
- 08 ‘나’와 의원은 서로 아무개 씨와 친한 사이임을 알게 되면서 인간적 유대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 09 말하는 이는 홀로 앉아누워 있을 때 외로움, 힘들음을 느꼈다. 그러다가 의원이 아버지(아버지로 모시는 이)의 친구임을 알고는 반가움을 느끼고, 이후 의원의 진료를 받으며 친근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 10 (가)의 말하는 이는 의원의 진료를 받으면서 고향에 대해 따스함과 편안함, 친근감 등을 느끼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변해 버린 고향을 보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의 고향에 대한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함.	2점	5점
(나)의 고향에 대한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함.	2점	
대조적인 문장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이야기 속 시선 _ 동백꽃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9

1 서술자 2 ② 3 ④

- 1 글쓴이를 대신하여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
- 2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3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이다.

소단원 체크

p.20-30

1 ② 2 ④ 3 ③ 4 ④ 5 ④ 6 ㉠, ㉡ 7 ① 8 ④ 9 ⑤
10 ⑤ 11 ③ 12 마름, 배재 13 ①,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④ 18 ① 19 ②, ③ 20 ① 21 ⑤ 22 ② 23 ① 24 ⑤
25 닭싸움, 뼈드러진다 26 ⑤ 27 ⑤ 28 ① 29 여우 새끼 30 ②
31 ① 32 ⑤ 33 ③ 34 ④

- 1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사건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가)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발단에 해당한다.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
- 3 나무를 하러 가려던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의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에게 쫓이는 모습을 보았다.
- 4 ‘나’는 점순이가 자꾸 닭싸움을 붙이는 이유를 알지 못하여 점순이네 수탉이 자신의 수탉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화가 났다.
- 5 점순이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반면,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무뚝뚝하고 어리숙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6 점순이가 ‘나’에게 준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호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 7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무안함, 창피함, 야속함,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체념하지는 않았다.

- 8 (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의 심리는 나타나지만, 점순이의 심리는 직접 드러나지 않고 행동과 표정만 제시된다.
- 9 어리숙한 ‘나’는 자신이 감자를 거절하여 자존심이 상한 점순이가 눈물을 보이는 이유를 헤아리지 못한다.
- 10 (마)에서 얼른 시집 가라는 동리 어른의 말을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를 통해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11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에서, ‘나’가 자존심이 상해서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 12 점순이네 집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의 집이고, ‘나’의 집은 마름에게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는 소작인의 집이다.
- 13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패는 것은 자신이 준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한 의도인 동시에 자신에게 무관심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이다.
- 14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씨암탉을 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 15 ‘나’는 점순이의 집에 뛰어들어 가지는 못하고 집 밖에서 울타리를 후려했다.
- 16 (자)에는 ‘나’의 씨암탉을 괜 점순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17 작품 속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면 작품에 현장감, 사실감을 부여할 수 있다.
- 18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에게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매우 억울하고 분했다.
- 19 점순이는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양값음과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붙이지만 ‘나’는 이런 점순이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 20 ‘나’는 씨암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듣고, 점순이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 21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났지만 결국 점순이네 수탉에게 지자 실망감을 느꼈다.
- 22 ‘나’가 점순이네 수탉을 이기기 위해 고추장을 먹인 것이지 점순이가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은 아니다.
- 23 ‘나’의 수탉이 평소에 고추장을 즐겨 먹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고추장을 먹인 것이다.

- 24 ‘나’는 점순이네 수탉을 이기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억지로 먹였으나 닭은 오히려 빠드러졌고, 이를 아버지가 볼까 봐서 닭을 해에다 감추었다.
- 25 ‘나’를 괴롭히기 위해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이를 이기기 위해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지만 오히려 호되게 당하고, 그 후 고추장 물을 먹이자 수탉은 빠드러진다.
- 26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괴롭히기는 했으나 마름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
- 27 (거)와 (너)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인물의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이다.
- 28 점순이는 ‘나’가 오는 길목에서 닭싸움을 붙인 뒤 호드기를 분다. 그 이유는 ‘나’의 관심을 끄는 동시에 자신의 여유로움을 부각하여 ‘나’를 더 약 올리기 위한 것이다.
- 29 점순이를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라고 생각했던 ‘나’는 점순이가 알미워져 ‘여우 새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 30 사건 전개 과정을 볼 때, ㉠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것을 의미한다.
- 31 (더)에서 ‘나’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점순이의 호의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을 뜻하는 ‘기사회생’이 적절하다.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④ 악전고투(惡戰苦鬪):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움.
-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것이나 몰골이 더욱 골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2 노란 동백꽃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33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는 동백꽃 냄새인 동시에 ‘사랑’의 냄새로 이는 풋풋한 사랑의 설렘을 후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 34 이 글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p.20-30

- 01 속, 1, 주인공, 닭싸움, 화 02 눈치, 관심, 토속적, 갈등, 자존심
- 03 관심, 괴롭힘, 욕, 싸움 04 빈사지경, 화, 겁
- 05 향토적, 화해, 사랑
- 생각 모으기 서술자, 분위기, 형상화, 행동, 충격, 제도

교과서 날개

p.20-30

1 호의를 거절당해 민망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2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이다. /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3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쳐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점순이가 '나'의 닭을 꺼내어 닭싸움을 붙일까봐 걱정되었을 것이다. / 닭을 두고 나무를 하러 가야 해서 초조했을 것이다. 5 마름 집의 닭을 죽였으므로 소작하는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도 쫓겨날까 봐 겁이 나서 울었을 것이다.

소설 한눈에 보기

p.31

생색, 감자

소단원 마무리

p.32

감자, 고추장, 1인칭 주인공, 해학적, 소작인, 마름, 갈등, 동백꽃, 사랑

학습 활동 엮보기

p.33-39

닭싸움, 고추장, 동백꽃, 순박, 솔직, 화해, 감각적, 순박, 풋풋, 좋아하는, 눈치, 의도, 관찰, 해학적, 직접적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33-39

- 1 ③ 2 ③ 3 감자 4 ④ 5 ④ 6 ③ 7 ⑤ 8 ⑤ 9 ④
10 ③, ⑤ 11 1인칭 관찰자 시점 12 ③ 13 ① 14 1인칭
관찰자 시점 15 ③ 16 ⑤ 17 ① 18 ① 19 ⑤ 20 ③
21 ⑤ 22 ②

- 1 나흘 전 '나'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하자, 점순이가 '나'의 씨 암탉을 때리고, 이후 자기네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기 시작했다. 결국 화가 난 '나'가 점순이네 수탉을 죽이지만 점순이가 그것을 봐주면서 둘은 화해하고 함께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힌다.
- 2 '나'는 눈치가 없고 어수룩하며, 무뚝뚝하고 순박하다. 이와 달리 점순이는 조숙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당돌하다.
- 3 점순이가 '나'에게 준 감자는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감을 보여 주는데, '나'가 이를 거절하자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 4 이 소설은 사춘기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보여 준다.
- 5 점순이가 평소와 달리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 6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 7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 8 점순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볼 때, '나'가 점순이를 좋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9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안에 위치하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는 시점이므로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10 '나'는 눈치가 없고 어리숙하여 자신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나'와 점순이의 순박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11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을 곁들일 수 있다.
- 12 점순이를 서술자로 내세우면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3 소설에서 서술자나 서술자의 관점이 달라지면 소설의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
- 14 등장인물인 옥희가 주인공인 어머니와 사랑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알 수 있다.
- 15 독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책을 읽은 후에 해야 하는 활동이다.
- 16 아저씨가 준 꽃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당황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옥희를 서술자로 내세워 서술자가 말해 주지 못하는 내용을 상상하며 읽게 하는 것이다.
- 17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품을 쓴 작가에게 해야 할 질문이다.
- 18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가상 인터뷰를 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성격, 심리 등을 더 잘 파악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19 작품에서 활용한 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드는 것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 20 책의 내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책을 읽기 전에 해야 하는 활동이다.
- 21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독서 활동을 공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22 모둠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둠원들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 내용의 책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01 ② 02 ② 03 ④ 04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복수이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05 ⑤ 06 ① 07 ① 08 눈치 없고 어리숙하여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 상황이 전달 되면서 사춘기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 적으로 드러난다. 09 ③ 10 ⑤ 11 ③ 12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하여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

- 01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02 감자 쪄간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의 표시이지만 '나'가 그런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 03 점순이는 '나'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이고 당돌하게 표현하고 있다.
- 04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가 담긴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해 복수 하는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붙였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에 대한 복수(양감음)라는 내용을 제시함.	2점	4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점순이는 '나'의 씨앗을 붙들어 놓고 알도 못 낳으라고 불 기작계를 주먹으로 쥐어박고 있었다.
- 06 '나'가 점순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 마름인 점순이네에게서 땅을 부치는 소작인이기 때문이다.
- 07 '나'는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 08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 할 정도로 눈치가 없고 어리숙하다. 이러한 '나'는 사춘기 시 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 적으로 드러낸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눈치 없고 어리숙하여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특징을 제시함.	2점	5점
'나'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사춘기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 이 글의 중심 사건이다. '나'와 점순이의 신분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중심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 10 평소에 점순이를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라고 생각했던 '나'는 자신의 수탉을 빈사지경에 이르게 하고도 호 드기만 붙고 있는 점순이를 본 후 여우 새끼 같다고 생각한다.
- 11 점순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나'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나'의 시각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맞지만 점순이의 입장을 응 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나'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등장인물인 '나'의 시 각으로 사건이 전달되기 때문에 작품 속의 서술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나 점순이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 12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나'와 점순이 가 극적으로 화해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등장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분위기(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체크샘과 함께 선택 학습

활동 1 말하는 이에 주목하여 시조 감상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⑤ 2 ③

- 1 <훈민가>의 말하는 이는 농민으로, 다른 농민들에게 부지런 히 농사를 짓자고 제안하고 있을 뿐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
- 2 ㉠에서 말하는 이는 서로 도우며 지내자는 상부상조의 덕목 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 2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② 2 ⑤ 3 마음이 시멘트 벽처럼 삭막하게 메말라 가고 있다.

교과서 날개 | 1 '흄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흄 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흄 놀이도 자 연을 알게 하는 산 공부인데.' 등 2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느꼈다. 3 편 리함과 문명의 이기에 젖어 딱딱한 시멘트 벽처럼 마음이 삭막하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 1 글쓴이는 작은 마당이라도 있는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입버 롯처럼 말하지만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 실제로는 아파트 를 떠나지 못했다.
- 2 이 글에서 '나'의 어머니가 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 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에 젖어 마 음이 시멘트 벽처럼 삭막하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잠깐 어휘 학습

1 시의 목소리

(1) 아랫목 (2) 윗목 (3) 처마

2 이야기 속 시선

흐뭇하다 - 마음에 흡족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치가 떨리다 - 참을 수 없이 몹시 분하거나 지긋지긋하다, 민망하다 - 낮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 사족 을 못 쓰다 -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 하다, 기뻐하다 - 마음에 부 담이 없이 가볍고 편안하다. (1) 사족을 못 쓴다 (2) 민망하다 (3) 흐뭇하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48-49

- 01 말하는 이 02 (1) 주제 (2) 정서, 주제 (3) 관점 (4) 관점 03 (1) × (2) ○ (3) ○ (4) ○ (5) × 04 (1)-㉠ (2)-㉡ (3)-㉢ 05 어둡고 무서워 06 외롭, 서글픈, 관점 07 엄마, 외로움 08 (1) ○ (2) × (3) × (4) ○ (5) ○ 09 신선 10 아무개 씨 11 막역지간 12 손길 13 촉각적 14 가족, 그리움 15 고향, 위안, 따스함, 쓸쓸함, 관점 16 고향, 관점 17 서술자 18 (1) 주제 (2) 안, 밖 (3) 관점 (4) 시점 19 (1)-㉠ (2)-㉡ (3)-㉢ (4)-㉣ 20 (1) × (2) ○ (3) × (4) ○ (5) ○ 21 1인칭 주인공 시점 22 (1) × (2) ○ (3) ○ (4) × (5) × 23 감자, 자존심 24 고추장 25 ㉠-㉡-㉢-㉣-㉤-㉥ 26 (1) 감자 (2) 노란 동백꽃 (3) 닭싸움 27 해학적 28 주제

대단원 종합 문제

p.50-54

- 01 ③ 02 ③ 03 배춧잎 같은 발소리 04 ① 05 ② 06 ⑤ 07 어른이 된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에서 고향과 아버지(또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를 떠올렸기 때문에 말하는 이는 따스함, 반가움, 친근함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13 ② 14 ② 15 ② 16 ㉠, ㉡ 17 ③ 18 ② 19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므로 ‘나’가 점순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 ⑤ 21 ④ 22 ④ 23 (가)에서 농사일을 하는 대상, 즉 듣는 이가 농민이므로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민이 함께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01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외로움, 서글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외롭’은 어린 시절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찬밥’ 또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롭게 방에 있던 어린 시절 ‘나’의 힘들었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3 이 시는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를 시든 배춧잎에 비유하여 엄마의 고단하고 지친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이 시는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어린 시절의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떠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외롭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운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6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은 어린 시절의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이 어른이 된 현재에도 여전히 화자에게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07 어른이 된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내 유년의 외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어른이 된 ‘나’는 홀로 어머니를 기다리며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을 쓸쓸하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8 ‘나’는 의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촉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지만 의원에게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 09 (가)의 말하는 이인 ‘나’는 의원과 고향이 같은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인 ‘아무개 씨’를 ‘나’와 의원 모두 알고 있을 뿐이다.

- 10 (나)의 말하는 이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향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끼지는 못한다.

- 11 (나)의 말하는 이가 돌아온 고향의 자연은 과거와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한다. ㉠은 과거와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나머지는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고향을 의미한다.

- 12 ‘나’는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에서 고향과 고향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고는 반갑고 친근한 정서를 느끼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따스함(친근함/그리움/반가움)의 정서를 씀.	2점	5점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과 가족을 떠올렸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3 이 소설은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14 <보기>처럼 서술자를 다른 사람으로 재구성한다고 해서 ‘나’와 점순이 간의 갈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 Clinic 오답 강의

① ‘나는 그런 점순이를 보며 점순이가 벌써 저렇게 자랐다, 흐뭇하다가도 ~’에서 점순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관점을 알 수 있다. ③ 손돌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점순이의 행동이 제시되면서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점순이의 행동과 의도가 좀 더 알기 쉽게 전달된다. ④ ‘점순네가 이 일을 알면 소작인의 아들내미와 어울리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에서 소작인의 아들과 마름의 딸이 어울리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⑤ (가)에서는 어리숙한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해 해학적 분위기가 생겼던 반면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이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해학적 인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 15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고 감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한 것이다.

- 16 점순이가 ‘나’의 집 수탉과 자기네 수탉을 싸움 붙이는 이유는 ‘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앙갚음 때문이다.

- 17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은 점순이가 자신의 호의를 또 거절하지 말 것을 ‘나’에게 확인받는 말이다.

- 18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따뜻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19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계층적 차이 때문에 ‘나’가 점순이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마름'과 '소작인(소작농/배제)'으로 '나'와 점순이의 신분을 언급함.	2점	5점
신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대거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0 (가)에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나)에서 '나'는 흙 놀이를 했다고 아이를 혼내는 아이 엄마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22 증조할머니는 흙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려서 '나'가 흙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몸에 흙이 묻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증조할머니가 흙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23 (가)에서는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듣는 이가 농사를 열심히 짓자는 말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도록 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에서 듣는 이가 '농민'이라는 것을 밝힘.	2점	5점
듣는 이가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잠깐

사술형 특강

p.55-56

01 (1) 1연에서 어린 시절의 '나'는 빈방에서 홀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2연에서 어른이 된 '나'는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2) <보기>의 말하는 이는 엄마로,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을 이야기하는 <엄마 걱정>과는 달리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02 (1) '나'는 북관에서 혼자 앉아누워 있다가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다. (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라보지만, <보기>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

03 (1) 서술자 '나'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2) 독자도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어리숙한 '나'가 눈치채지 못함으로써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04 (1) 소작인의 아들인 '나'가 마름 집의 수탉을 죽였기 때문이다. (2) '나'와 점순이 사이의 분위기: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주제 전달: '나'와 점순이 사이의 따뜻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01 (1) 1연에서 '나'는 시장에 간 엄마를 홀로 기다리고 있으며, 2연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1연에서 말하는 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2연에서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보기>에는 <엄마 걱정>과는 달리 말하는 이인 엄마가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의 말하는 이가 엄마임을 씀.	2점	5점
엄마가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제시되어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1) 이 시의 1~2행에서 말하는 이인 '나'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인물('나', 의원), 사건(혼자 앉아누움), 배경(아침, 북관)이 모두 드러나도록 씀.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이 시의 말하는 이 '나'는 의원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고향을 편안하고 정겨운 곳으로 여기고 있지만, <보기>의 말하는 이 '나'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을 상실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시의 말하는 이가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씀.	3점	6점
<보기>의 말하는 이가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1)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의 표현인 줄 모르고 이상하게만 여기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서술자가 '나'임을 밝힘.	2점	5점
'나'가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이 글은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는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서술자가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다는 내용을 씀.	2점	5점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1) 점순이네는 마름 집이고 '나'는 점순이네에게 땅을 부치는 소작인의 아들이다. '나'는 마름 집의 수탉을 죽였기 때문에 ㉠과 같이 자신의 집에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점순이네는 마름, '나'의 집은 소작인이라는 것을 밝힘.	2점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이 소설에서 노란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나'와 점순이 사이의 따뜻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씀.	2점	6점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나'와 점순이 사이의 따뜻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 세상과 주고받는 글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60

1 ⑤ 2 ③ 3 비교, 대조

- 1 설명문은 정보나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쉬운 표현으로 서술해야 한다.
- 2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적,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므로 그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3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법은 비교,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은 대조이다.

소단원 체크

p.61-64

1 ①, ④ 2 ② 3 ③ 4 ①, ④ 5 ① 6 ④ 7 ① 8 ①, ③
9 ① 10 ④ 11 ⑤

- 1 (가)는 설명문의 구성 단계 중 ‘처음’에 해당한다.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을 쓰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 2 (나)에는 간지러운 느낌을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나누어 설명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3 간지러운 느낌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나뉜다고 하였으므로, 가려움이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 4 가려움과 관련된 질환이 많고, 건디기 어렵기 때문에 가려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설명에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피부 질환의 예로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이 있다고 한 것에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5 (라)에서 간지럼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마)에서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함으로써 몸에 해로운 것을 일차적으로 막기 위해 가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바)에서는 인과의 방법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예시의 방법으로 간지럼을 쉽게 타는 신체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 8 (마), (바)에서 가까운 사이에 유대감을 증진하거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알려 주고 방어 능력을 학습하게 하기 위해 간지럼을 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 내가 나를 간지릴 때에는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 10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변화를 줄 때 간지럼을 타는 것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간지럼을 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예측’,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간지럼’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중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p.61-64

- | | |
|------------------|------------------------|
| 01 수수께끼 | 02 전체, 통각, 특정, 강한 |
| 03 해로운, 유대감, 방어 | 04 내, 나, 남, 나, 예측 불가능성 |
| 05 통합, 대처, 인공 지능 | |
- 생각 모으기** 예시-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방법, 비교와 대조-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 인과-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분석-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정의, 뜻

교과서 날개

p.61-64

- 1 간지럼의 원인은 통각만이 아니다. 2 간지럼을 통해 가까운 사이에 유대감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식에게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알려 주고 이를 방어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기 위해 간지럼을 타게 되었다.

내용 한눈에 보기

p.65

간지럼, 가려움, 예측

소단원 마무리

p.66

호기심, 대조, 인과, 차이, 의의, 통각, 전체, 특정, 방어, 간지럼, 의의, 뜻, 예, 공통점, 차이점, 같은, 기준, 원인, 부분

학습 활동 엿보기

p.67-69

악한 움직임, 막기, 특정 부위, 취약한 부분, 불가능성, 사례, 예측 불가능성, 구분, 인과, 나누어, 원인, 결과, 인과, 차이점, 인과, 예시, 가려움, 방어 능력, 인과, 가늠함, 대조, 차이, 강조, 예시, 대조, 인과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67-69

1 ④ 2 ②, ④ 3 정의, 예시 4 ④ 5 ② 6 ⑤ 7 ② 8 ⑤
9 ⑤

- 1 간지림은 간질이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반응으로,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 간지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간지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 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간지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졌다.
- 3 ‘텃새란 ~하는 조류’에는 정의, ‘참새, 까마귀, 까치, 박새, 꿩’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4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한다.
- 5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려움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 6 이 글은 가려움과 간지림의 차이, 간지림을 타게 된 이유,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분, 대조, 인과, 예시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했다.
- 7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설명 방법이므로 간지림과 가려움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8 사람이 ‘예측, 행동, 피드백’하는 것의 예로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9 이 글은 내가 나를 간질일 때와 남이 나를 간질일 때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간지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70-71

- 01 ②,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②
- 08 간지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 간지림에서 배운 예측 불가능성을 인공 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간지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설명문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쓰며,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
- 02 (라)에서 현재는 간지림의 원인으로 촉각과 통각, 압각과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구분은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나)에서는 구分的 방법을 사용하여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 04 ㉠에서는 어떤 대상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05 이 글은 간지림을 타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로, 간지림의 특성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명료하게 제시하고, 간지림을

타게 된 이유를 인간의 진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 06 (가)에는 인과, 예시, (나)와 (다)에는 인과, 대조, (라)에는 인과,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에는 하나의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다)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에는 인과, ②에는 대조, ③에는 분석, ④에는 대조, ⑤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07 로봇으로 간질이는 실험에서 로봇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면 간지림을 타지 않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지림을 타는 것으로 보아 간지림을 타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라)에 최근 심리학과 신경 과학 분야에서 간지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 간지림에서 배운 예측 불가능성을 인공 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지림을 비롯한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간지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내용을 씀.	2점	4점
간지림에서 배운 예측 불가능성을 인공 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설명하는 글 쓰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72

1 ㉠-㉡-㉢-㉣-㉤-㉥ 2 (1)분류 (2)분석 3 ① 4 ③

- 1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 고쳐쓰기’의 단계를 거친다.
- 2 분류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분석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 3 전통 놀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제시된 글에서는 야생화에 속하지 않는 ‘장미와 튜립’을 삭제했다.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p.73-82

정보, 인터넷, 면담, 삭제, 흐름, 또, 비유, 그러므로, 유지해, 접촉하면, 정의, 인과, 완성도, 이해

- 1 정보 2 ② 3 ⑤ 4 ⑤ 5 ④ 6 ④ 7 ③ 8 구분
9 비교, 대조 10 ④ 11 ③ 12 ① 13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이 없기 때문이다. 14 ③ 15 (참고한 자료의) 출처 16 ㉠, ㉢, ㉤
17 ② 18 ④ 19 ③ 20 ② 21 대치 22 모표피, 모피
질, 모수질 23 ③ 24 ④ 25 ② 26 ④ 27 ① 28 ⑤
29 ④ 30 ③ 31 ③ 32 ③ 33 ② 34 ⑤

생각 모으기 특성, 정의, 구분, 고쳐쓰기, 삭제

- 01 정안이는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 02 정안이는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03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글이므로, 설명문을 쓰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상상하는 것은 올바른 정보 수집 방법이 아니다.
- 04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위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글이므로 자료를 수집할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 05 정안이는 (가)에서 책, (나)에서 사전, (다), (바)에서 신문, (라)에서 전문가와의 면담, (마)에서 인터넷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06 ㉠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바람, 자외선에 자주 노출됐을 때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 07 ①은 (가), ②는 (마), ④는 (다), ⑤는 (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 파마나 염색은 머리카락을 자극하므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으나, 파마나 염색의 장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 08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구분'이다.
- 09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 설명하는 것을 '비교', 차이점을 드러내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한다.
- 10 제시된 자료는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간 3.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11 '머리카락 손상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이다. ①은 예시, ②는 비교, ④는 정의, ⑤는 묘사이다.
- 12 정안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고쳐 쓰고 있지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전문성을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았다.
- 13 정안이는 내용을 통일성을 고려하여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나)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고자 한다.
- 14 (나)에서 모표피가 벌어지거나 떨어져서 손상되는 것은 머리카락이 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표피를 떨어뜨리는 것은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다.
- 15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16 제목은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며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한다. 또한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다.
- 17 ㉠은 '김, 밥, 속 재료가 말려 있는 김밥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추가했다.
- 18 ㉢에는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 19 ㉢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으로 나누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 20 ㉠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을 보충할 수 있다.
- 21 제시된 글에서는 내용이나 표현을 더 적절한 것으로 바꾸는 '대치'의 방법을 활용하여 '접촉하면'을 '닿으면'으로 바꾸었다.
- 22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23 정안이는 두 번째 문단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 24 시금치, 굴, 달걀, 호두 등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거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므로 평소에 굴, 달걀을 꾸준히 먹는 것은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 25 고쳐쓰기의 목적은 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개선하는 것이다.
- 26 ㉠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 27 설명문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설명 대상과 예상 독자를 정하고, 글을 쓰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28 글을 쓸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여드름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여드름에 관한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아니다.
- 29 수집한 자료를 모두 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 30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개요로 정리하면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
- 31 ‘인과’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32 초고를 쓸 때에는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 글의 주제 등을 고려하며 글을 쓴다.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33 고쳐쓰기의 원리 중 ‘대치’는 내용이나 표현을 더 적절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 34 글을 쓸 때에는 글쓰기 목적과 주제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써야 한다.

소단원 마무리

p.83

목적, 예상 독자, 생성, 조직, 개요, 열거, 열거, 특성, 추가, 대치, 재구성, 개선, 표현, 설명 방법

소단원 종합 문제

p.84-85

01 ① 02 ⑤ 03 ② 04 ④ 05 ②, ④ 06 ⑤ 07 ④ 08 ㉠은 <보기>에 비유적 표현을 추가하여 머리카락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읽는 이는 머리카락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1 건강한 삶을 사는 인물은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려는 목적과 관련이 없다.
- 02 (가)~(마)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글쓰기의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한다.
- 03 (나)의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층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를 통해 알 수 있는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것의 의미를 정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 ‘머리카락의 구조로 분석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다): ‘건강한 머릿결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예시, 열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라):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로 인과, 열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마): ‘머릿결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로 예시, 열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04 문맥을 고려할 때 ㉠에는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와 같은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 05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므로 글쓴이의 개인적인 체험이 드러나도록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글을 쓸 때에는 초고를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글의 부족한 점을 점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6 (라)에서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자는 것을 피하고,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수건으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파마나 염색은 자주 하지 않는 등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 07 (바)는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것이다.
- 08 ㉠의 ‘김, 밥, 속 재료가 말려 있는 김밥처럼’은 <보기>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5점
독자가 머리카락의 구조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체크샘과 함께 선택 학습

p.86-87

활동 1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구조 파악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③

- 1 글쓴이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성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 2 인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 쓰기

선택 학습 문제 | 1 대조 2 ③

- 1 제시된 글에서는 흡스가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해박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무지하다는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인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인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잠깐 어휘 학습

p.88

①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귀가 가렵다 - ㉠,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 ㉡, 발이 저리다 - ㉢, 눈이 시어서, 귀가 가렵지

② 설명하는 글 쓰기

(1) 변형되어서 (2) 손상 (3) 지지, 변질되다, 변형되다, 손해, 지지

대단원 마무리 체크

p.89-90

01 설명문 **02** 분석, 인과, 구분, 분류, 대조, 비교, 예시, 정의 **03** 간지럼, 설명 **04** (1) ○ (2) × (3) ○ (4) × **05** (1) 대조 (2) 대조 (3) 인과 **06** 가려움, 간지럼 **07** 전체, 특정, 약한, 강한, 통각, 통각, 따로, 여러 감각 **08** 유대감, 방어 능력 **09** ㉠, ㉡ **10** (1) 구분 (2) 인과 (3) 예시 **11** 특성 **12** (1) 예시 (2) 분석 (3) 인과 (4) 정의 **13** (1) 초고 쓰기 (2) 내용 생성하기 (3) 고쳐쓰기 (4) 계획하기 (5) 내용 조직하기 **14** 고쳐쓰기 **15** 삭제, 추가, 대치, 재구성 **16** (1) 전체 (2) 표현 (3) 문맥 (4) 주제 (5) 문장 **17** 머릿결, 설명 **18** 대상, 분석, 방법, 인과, 정리 **19** (1) 제목 (2) 삭제 (3) 순서 (4) 문맥 (5) 접속어 **20** '지지해' → '유지해' **21** 분석, 의미, 원인, 예시 **22** (1) 완성도, 개선 (2) 효과적

대단원 종합 문제

p.91-94

01 ⑤ **02** ⑤ **03** ② **04** ③ **05** ③ **06**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기 때문이다. **07** ④ **08**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⑤ **10** ① **11** ㉠, ㉡, ㉢, ㉣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대조를 통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성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1 이 글은 객관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므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하며 읽는 것은 수필을 읽는 방법이다.

02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간지럼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제시하고 간지럼이라는 수수께끼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03 (나)에서는 간지러운 느낌을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04 제시된 글은 가려움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다) 문단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05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간지럼을 타게 된다고 하고 있을 뿐, 간지럼과 언어 능력의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라), ②, ④는 (나), ⑤는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6 (가)에서는 간지럼을 통해 가까운 사이에 가벼운 접촉을 하고, 유대감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식에게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알려 주고, 방어 능력을 학습하게 하게 하기 위해 간지럼을 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07 ㉠에는 어떤 대상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서도 웃감 사이에 종이를 넣는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 사용되었다.
- ②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 ③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가 사용되었다.
- ⑤ 어떤 목표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련의 행동, 변화, 단계, 작용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과정이 사용되었다.

08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고, 남이 나를 간질이는 경우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간지럼을 타다. 이를 통해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간지럼이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깊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9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10 이 글은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고치면 중심 내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11 이 글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고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 ㉡는 (나), ㉢는 (다), ㉣는 (라)에서 사용되었다.

12 (라)의 '처리하는'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관리하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의 마지막 문장은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 ② 접촉하면'은 문맥에 어긋나는 표현이 아니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지만,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닿으면'으로 바꿀 수 있다.
- ③ (마)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끝부분이므로 (다)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
- ⑤ (마)의 첫 문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13 (가)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을 대조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나)는 흠스의 특징을 대조와 예시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14 (가)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답을 제시한 글이고, (나)는 예시, 대조와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록 흠스라는 인물의 특징을 제시한 글이다.

15 ㉠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설명 방법인 대조가 사용되었다.

16 ㉠ 뒤의 문장은 앞 문장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에는 예시를 나타내는 접속어인 '예를 들어'가 적절하다.

- 17 (가)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시한 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주로 사용한 설명 방법으로 '대조'를 씀.	1점	5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씀.	2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참! 사술형 특강

p.95~96

- 01 (1) ㉠에서 활용한 '구분'은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인 '인과'가 사용되었다. 02 (1) 간지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은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경우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예시로, ㉡을 추가함으로써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03 (1) 머리카락의 구조를 '분석'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정의'의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2) ㉠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3) '처리하는'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관리하는'으로 바꾼다. 04 (1) ㉠에서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다. (2) <보기>를 (나)의 두 번째 문단의 '결국 머릿결은~'의 바로 앞에 추가하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01 (1) ㉠의 '견디기 어렵게~간지럼입니다.'에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구분'을 씀.	1점	5점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개념을 씀.	2점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내가 나를 간질이는 경우와 남이 나를 간질여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3) ㉡은 내가 나를 간질일 때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은 로봇으로 간질이는 실험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눈으로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과 ㉡에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씀.	2점	4점
'인과'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2 (1) (가)에서는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는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2) ㉠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예측, 행동, 피드백'을 예를 들어 설명한 문장이다. ㉠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씀.	2점	5점
예시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3 (1) '머리카락은~이루어져 있다.'에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의미한다.'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은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고쳐쓰기의 원리 중 '삭제'의 원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씀.	2점	4점
㉡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3) '처리하다'는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짓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처리하는'은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피고 돌보다.'라는 의미의 '관리하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처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내용을 씀.	1점	3점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기 때문에 바꿔 써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1) ㉠에서는 인과의 방법으로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보기>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추가하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를 '결국 머릿결은~' 앞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보기>를 추가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3 | 즐거운 언어생활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00

1 담화 2 ① 3 (1)○(2)○ 4 ②

- 1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2 성별, 지역, 세대, 문화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하고, 장소는 상황 맥락에 속한다.
- 3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또한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 4 담화의 요소를 고려하며 의사소통을 하면 담화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다양하게 해석되던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이해하기

p.101-104

성현, 교실, 제안, 담화, 내용, 치과 의사, 환자, 만족, 점검, (나), (가), 여유, 꾸짖는, 팔아

담화의 특성 이해하기

p.104-106

그런데, 짜임새, 주제

담화의 개념과 특성 고려하여 국어 생활하기

p.106-109

충간 소음, 일인칭, 친밀

소단원 체크

p.101-109

- 1 ⑤ 2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3 ② 4 ③ 5 상황 6 ② 7 ⑥, ⑧, ⑨ 8 ④ 9 ④ 10 ③ 11 ㉠, ㉡, ㉢, ㉣ 12 ⑤ 13 ② 14 ③ 15 ⑤ 16 ④ 17 ⑤ 18 (1) 통일성 (2) 응집성 19 ⑤ 20 ④ 21 ④ 22 ① 23 ⑤ 24 ② 25 ⑤ 26 ① 27 ③

생각 모으기 말하는 이, 상황, 통일성, 손님, 식당, 마무리

- 1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2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 3 유미와 성현이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상황 맥락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방과 후'라는 시간과 '교실'이라는 장소이다.
- 4 성현이는 유미에게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고 있다.

- 5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중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 6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과 같이 말했다면 그것은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것이므로, 직원의 태도나 음식의 맛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 7 말하는 이인 치과 의사, 듣는 이인 환자,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치과를 고려해 볼 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는 식사할 때 치아의 상태가 괜찮았는지 점검하는 의미이다.
- 8 (가)와 (나)는 말하는 이, 성별, 지역, 세대가 모두 동일하다. (가)와 (나)의 '5분 남았는걸'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는 시간과 장소의 차이, 즉 상황 맥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9 엄마는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을 꾸짖는 의미에서 "지금 몇 시니?"라고 한 것인데, 아들은 상황 맥락과 엄마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담으로 현재 시각을 말하고 있다.
- 10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했다.
- 11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문화 등이 있다.
- 12 해설자의 마지막 말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이므로 떡볶이의 맛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3 앞의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므로 '그런데, 하지만'과 같은 대조의 의미를 지닌 접속어가 적절하다.
- 14 지시어 '그것'은 앞 문장의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 옷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킨다.
- 15 '그것'은 지시어로, 담화의 응집성을 높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이고, 담화를 간결하게 구성한다.
- 16 담화의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속어와 지시어가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글의 응집성을 해칠 수 있다.
- 17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를 사용하면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 18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져야 하는 담화의 특성을 '통일성'이라고 하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담화의 특성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 19 제시된 담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화 자체만으로는 담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 20**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는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만 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1** 서현이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 22** 서현이는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으므로, 이번에 어떤 과목을 시험 보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에 어긋난다.
- 23** 다니엘이 '너희 형제였어?'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니엘은 '우리'를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 다니엘이 '우리'라는 말이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 25**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에도 '시원하다'는 말을 쓰므로, 아버지는 거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한 것이다.
- 26** 외국인인 우리 사회에서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을 '이모'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문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27** '차도남'은 유행어로 할아버지는 민혁이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차도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10~112

-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② 06** 고모는 '쌀을 사다'의 의미를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의 의미로 이해했는데, 이는 고모와 주연이가 사는 '지역'이 달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07 ④ 08 ⑤ 09 ③ 10 ① 11 ③ 12 ①**: 위층인 305호에 사는 이웃, ①: 시험 기간에는 층간 소음을 줄여 주세요. **13 ⑤ 14 ② 15 ① 16 ③ 17** 아버지는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시원하다'를 사용했고, 초등학생은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초등학생이 아빠가 거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이유는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 때에도 '시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01**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담화 요소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 02** (가)에는 음식의 맛이나 식당의 접대와 관련된 대답이, (나)에는 치아의 상태와 관련된 대답이 적절하다.
- 03** 성현이는 유미에게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고 있다.

- 04** (가)는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나)는 5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탁구 치러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와 (나)는 상황 맥락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민지가 전달하려는 내용도 다르다.
- 05** 고모가 사용한 '쌀을 사다'의 의미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이다.
- 06** 고모와 주연이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 '지역'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고모가 사용한 '쌀을 사다'의 의미로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내용을 씀.	2점	6점
주연이가 이해한 '쌀을 사다'의 의미로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의 내용을 씀.	2점	
고모와 주연이 사이에 사회·문화적 맥락(지역)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7** 지각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지금 몇 시니?'라고 묻는 것은 시간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학생을 우회적으로 질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학생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지각의 사유를 밝히고 죄송하다고 대답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선생님은 학생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늦은 학생을 질책한 것이다.
 ② 선생님의 말이 학생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은 아니다.
 ③ 학생이 상황 맥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⑤ 학생은 상황 맥락을 잘못 파악한 것이지만 유행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 08** '쓰다'와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는 표현을 볼 때 친구와 도화지를 같이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담화 내용이다.
- 09** 다니엘은 한국의 언어문화에서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우리'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 10** 하나의 담화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아야 담화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11** 서현이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시험공부에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 12** 아래층에 사는 서현이는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시험 기간에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①에 위층 305호에 사는 이웃을 씀.	2점	4점
①에 시험 기간에는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3** 해설자의 첫 번째 담화를 통해 달인의 떡볶이가 맵지 않고 담백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해설자의 '화학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 비법!'이라는 말을 참고할 때, ㉠에서 달인이 조미료 없이 요리한다는 말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5 할아버지는 세대가 달라 손자가 사용하는 유행어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 16 언어생활에서 증의적인 표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17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아빠가 '시원하다'를 사용한 의미로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하다.'라는 내용을 씀.	2점	6점
초등학생이 이해한 의미로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라는 내용을 씀.	2점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 때에도 '시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정확한 발음과 표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3-114

- 1 한글 맞춤법 2 ③ 3 전통성, 합리성 4 ⑤ 5 ④ 6 ②
7 (1) [밥:따니] (2) [익찌] (3) [막찌만] 8 국어 생활

- 1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의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이다.
- 2 '부엌[부억]'은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고, 나머지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3 표준 발음법은 오늘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 4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 5 '빠'는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ㄹ'로 발음되므로 '넓다'는 [넙따]로 발음해야 한다.
- 6 용언의 활용형인 '저, 켜, 처'는 각각 [저], [껴], [처]로 발음되기 때문에 '가져'는 [가저]로 발음된다.
- 7 '뱌-'은 자음 앞에서 [뱌]로 발음해야 하므로 [뱌:따니]가 올바른 발음이다. '러'는 자음 앞에서 뒤엎것이 남으므로 [익찌], [막찌만]으로 발음된다.
- 8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어의 표기 원리 이해하기

p.115-116

의미, 의미, 형태, 좋은, 떡볶이

단어의 발음 원리 이해하기

p.116-119

삼[삼], 낫[낫], 히읏[히읏], 낫다[낫따], 숲[숲], ㄴ, ㄹ, ㅁ, ㅇ, 올, 오시, 오뒤, 올차림, 대표음, 모음, 없는, 다출, 부어게, 부어간, 바다래, 거도술, ㄹ, ㄱ, ㅂ, ㅁ, 달든, [히망], [가저]

올바른 발음과 표기로 국어 생활하기

p.119-122

꼬치, 발미테서, 꼬뒤에, 일코, 소리, 늘거, 짤븐

소단원 체크

p.115-122

- 1 소리, 어법 2 ㄴ, ㄷ, ㄹ 3 ② 4 ② 5 ① 6 (1) [박] (2) [빈] (3) [늑] (4) [끈] 7 ⑤ 8 ④ 9 ② 10 (1) [부억] (2) [부어게] (3) [부어간] 11 ④ 12 ④ 13 ④ 14 ③,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② 19 ⑤ 20 [꼬뒤에], [일코] 21 ㄴ, ㄷ, ㄹ 22 ④ 23 (1) ○ (2) × (3) × (4) ○ (5) × (6) ○ 24 ④ 25 ③ 26 (1) 무난하게 (2) 드러나요 27 ③ 28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29 의사소통, 표준 발음법

생각 모으기 소리, 형태, 표준어, 국어, 단했어요, 의미

- 1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곰'은 [곰:], '밭'은 [받], '히읏'은 [히읏], '종로'는 [종노]로 발음된다.
- 3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생긴다.
- 4 '떡볶기'의 올바른 표기는 '떡볶이'이다.
- 5 '낫'의 올바른 발음은 [낫]이다.
- 6 '뱌'는 [박]으로, '빋'은 [빈]으로, '늑'은 [늑]으로, '끈'은 [끈]으로 발음된다.
- 7 '숲'의 받침 발음은 [ㅂ]이고, 나머지는 모두 [ㄷ]이다.
- 8 '낫, 낫, 낫, 낫'은 모두 [낫]으로 발음되나 '앞'은 [압]으로 발음된다.
- 9 '웃 위'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대표음이 된 [ㄷ]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지지만, '웃차림'은 이어지는 말이 자음이므로 '웃'이 대표음 [웁]으로 변한다.
- 10 '부억'은 'ㄱ'이 음절의 끝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부억]으로 발음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부어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부어간]과 같이 발음된다.

- 11 '옷 안'의 '안'은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단]으로 발음해야 한다.
- 12 '돛과'는 '돛' 다음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돈과]로 발음되고, 나머지는 '돛'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모음이 이어지므로 받침의 'ㅈ'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가 각각 [도출], [도치], [도춘], [도척, 도체]로 발음된다.
- 13 '옳고'에서 받침 'ㅁ'은 앞 자음 'ㄹ'이 탈락하고, 뒤 자음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ㅂ]으로 발음된다.
- 14 '값'은 [갑], '몫'은 [목], '흙다'는 [홀따]로 발음되므로 앞엿것이 남고, '삶'은 [삼:], '맑다'는 [막따]가 표준 발음으로 겹받침 중 뒤엿것이 발음된다.
- 15 '읽지'는 [익찌]가 올바른 발음이다.
- 16 '너의'의 경우 조사 '의'는 [너의/너에]로 발음된다.
- 17 '논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기 때문에 [노니, 노니]로 발음될 수 있고, 조사 '의'는 [의, 예]로 발음될 수 있다.
- 18 '의사'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기 때문에 [의] 발음만 인정된다. ①, ⑤는 조사이기 때문에 [의, 예]로 발음될 수 있으며, ③, ④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의, 이]로 발음될 수 있다.
- 19 '발밑에서'는 [발미테서]가 올바른 발음이다.
- 20 '꽃위에'는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꼬뒤에]로 발음되고, '옳고'는 'ㅎ(ㅎ)' 뒤에 'ㄱ'이 이어졌으므로 'ㅎ'과 'ㄱ'이 합쳐져서 [일꼬]로 발음된다.
- 21 '꽃'은 [꼇], '늘어나다'는 [느러나다]로 발음되나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고, 무덤[무덤], 설거지[설거지], 쓰러지다[쓰러지다]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22 '별에'는 [벼테]가 올바른 발음이다.
- 23 '흙을'은 [홀글]로, '흙어'는 [홀터]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 24 '옳고'는 [읍꼬]가 올바른 발음이다.
- 25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오면 겹받침의 뒤엿것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가 발음된다.
- 26 (1)은 '별로 어려움이 없다.'의 뜻인 '무난하다.', (2)는 '다른 것보다 두드러져 보인다.'의 뜻인 '드러나다'가 적절하다.
- 27 '나야'의 알맞은 표기는 '냐야'이다.
- 28 '하라버지가 다구리 아프로 가면'은 단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할아버지가 닭 우리 앞으로 가면'은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29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의 공식적인 발음 원칙을 정해 놓은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23-124

- 01 ② 02 ⑤ 03 (1) [늑] (2) [갑] (3) [흑] (4) [외골] (5) [할따] (6) [안따] (7) [읍따] 04 ①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옷 위'는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위]로 발음하고, '옷이'는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시]로 발음한다. 10 ② 11 ② 12 ㉠: [무늑/무네], ㉡: [무니], ㉢: [무:늑하다/무:늑하다] 13 ⑤ 14 ① 15 ④ 16 ㉠은 [안자], ㉡은 [달른]으로 발음되는데,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면 앞의 자음은 그대로 소리 나고, 뒤의 자음은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되기 때문이다.

- 01 음절의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으로 모두 7개이다.
- 02 음절의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으로, 'ㅎ'은 [ㄷ]으로 발음된다.
- 03 'ㄱ, ㅁ, ㄹ, ㅂ, ㅅ'은 음절의 끝에서 앞엿것이 남고, 'ㄴ, ㄷ'은 음절의 끝에서 뒤엿것이 남는다.
- 04 '닭'은 [닥]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나무[나무], 오빠[오빠], 마음[마음], 고드름[고드름]은 모두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05 '옷[온], 밭다니[밭:따니], 숲[숑], 발 아래[바다래]'는 모두 받침의 발음이 다른 소리로 바뀌지만 '부엌에[부어케]'와 같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면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
- 06 한글 맞춤법에 따라 '노코 → 놓고', '부엌 → 부엌', '조은 → 좋은', '설것이 → 설거지'로 표기해야 한다.
- 07 겹받침 'ㄴ'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나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ㄴ]로 발음된다. '맑다'는 용언(형용사)이므로 '맑-'이 'ㄱ'으로 시작되는 '-고' 앞에서 [말꼬]로 발음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진흙에[진흙게], ② 붓대[북따], ③ 닭패[닥파], ④ 읽대[익따]로 발음한다.

- 08 ㉡의 겹받침 'ㅂ'은 자음 앞에서 [ㄴ]로 발음되므로 '넓다'는 [넙따]로 발음해야 한다.
- 09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지면 '옷'의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어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또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면 'ㅅ'은 그대로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재점 요소	배점	총점
'옷 위'의 발음으로 [오위]를 쓰고,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임을 씀.	3점	6점
'옷이'의 발음으로 [오시]를 쓰고,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임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0 '단계로'는 [단계로/단계로]로 발음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말지만[막쩌만], ㉡ 깨끗이[깨꼬시], ㉢ 낮 기온[낫끼온], ㉣ 바다의[바다 의/바다에]로 발음된다.

- 11 ‘꽃이’는 ‘꽃’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왔기 때문에 [꼬치]로 발음한다.
- 12 ㉠의 ‘의’는 조사이기 때문에 [-], [네]로 발음할 수 있고, ㉡의 ‘-’는 첫소리가 자음이기 때문에 [ㅣ]로 발음해야 한다. ㉢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 [ㅣ]로 발음할 수 있다.
- 13 ‘저’는 [ㄷ]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활용형인 ‘저, 켜, 처’는 각각 [저], [쨌], [처]로 발음한다.
- 14 ‘쌍지’는 ‘ㅎ’ 뒤에 ‘ㅈ’이 결합했기 때문에 [싸치]로 발음해야 한다.
- 15 ㉠~㉣은 모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서 받침이 제 소릿값대로 발음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의 표준 발음은 [늘거]이다.
 ② ㉡은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③ ㉢의 표준 발음은 [짚븐]이다.
 ④ ㉠~㉣은 모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다.

- 16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오면 앞의 자음은 그대로 소리 나고, 뒤의 자음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의 발음으로 [안지], ㉡의 발음으로 [달민]을 씀.	각 1점	5점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올 때 앞의 자음은 그대로 소리 나고, 뒤의 자음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문법 기초 다지기

p.125-126

- 1 담화 2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3 (1) (가):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의미 (2) (나): 식사할 때 치아의 상태가 괜찮았는지 점검하는 의미 4 (1) (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각하지 않는다.(지각이 아니니 괜찮다.) (2) (나):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를 치러 나가기 어렵다.(시간이 부족하니 나가지 말자.)
- 5 쌀을 사다, 지역 6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문화 등 7 (1) × (2) ○ (3) × (4) ○ 8 (1) ○ (2) × (3) ○ (4) ○ 9 주제, 지시어
- 10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등 11 한글 맞춤법 12 소리, 형태 13 (1) 창문, 가위, 칠판 (2) 연필깎이, 책꽂이 14 표준 발음법 15 (1) × (2) ○ (3) ○ (4) ○
- 16 박, 부엌, 밖 17 (1) [일게], [일거야], (2) [씨암탁파], [수탈기] 18 (1) [온] (2) [여덟] (3) [오뒤] (4) [온도] (5) [바께] (6) [홀터] (7) [안따] (8) [박때] (9) [목] (10) [널따] (11) [갑] (12) [말꼬] 19 (1) ㄱ (2) ㄱ (3) ㄱ (4) ㄹ (5) ㅂ (6) ㅂ (7) ㄹ (8) ㅁ (9) ㅂ (10) ㄹ (11) ㄹ (12) ㅁ 20 (1) 조은→좋은 (2) 그에→그의 (3) 떡볶기→떡볶이 (4) 설것이→설거지 (5) 문안하다→무난하다 (6) 건들이지→건드리지 (7) 육개장→육개장 21 (1) [널븐], [노코] (2) [말그니], [막따] (3) [겨틀], [꼬튼] (4) [수프로], [수뽀로] (5) [다녀의/다녀에], [유의/유이] 22 정확하게, 의사소통

체크샘과 함께 선택 학습

p.127-129

활동 1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② 2 ③

- 1 두 사람은 통일성 없는 대화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만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다.
- 2 레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레오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대답을 해야 담화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활동 2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④ 2 ③ 3 널, 넙쩌카다, 넙똥글다, 넙쭈간 4 바틀, 바치, ㅈ, ㅊ

- 1 ‘오이소백이’는 ‘오이소박이’로 써야 올바른 표기이다.
- 2 ‘넙고’는 [넙꼬], ‘굶다’는 [국:따], ‘끝으로’는 [꼬트로], ‘뱉게’는 [뱉:께]로 발음해야 한다. ‘체힘의’는 [체히미/체히메]로 발음할 수 있다.
- 3 ‘넙다’에서 ‘넙’은 [넙]로 발음되고, ‘넙적하다’는 [넙쩌카다], ‘넙똥글다’는 [넙똥글다], ‘넙쭈한’은 [넙쭈간]으로 발음된다.
- 4 우리말에서는 앞말의 받침이 ‘ㄷ, ㅌ’이고 뒷말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ㄷ, ㅌ’은 각각 ‘ㅈ, ㅊ’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을’은 [바틀], ‘발이’는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잠깐 어휘 학습

p.130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말은 청산유수다. - 말을 그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말, 말 속에 말 들었다. - 말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마음속으로만 애 태울 것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2 정확한 발음과 표기

(1) 바래 → 바라 (2) 맞추었다 - 맞히었다 (3) 가리키고 → 가르치고 (4) 반드시 앉아 → 반듯이 앉아

대단원 마무리 체크

p.131-132

- 01 언어 02 내용 03 상황, 사회·문화적 04 (1) ○ (2) ○ (3) × (4) ○ 05 참여자 06 제안 07 식당 주인, 치과 의사 08 만족, 치아 09 시간, 장소 10 지각, 어렵다 11 지역 12 팔아, 사서 13 그런데(하지만, 그러나) 14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 옷을 자랑한다는 점 15 구성 요소 16 의미 17 통일성, 응집성 18 포함, 친밀 19 문화 20 시원하다 21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22 의미 23 소리 24 (1) ○ (2) × (3) × 25 발음 26 발음 27 ㄱ, ㄴ, ㄷ, ㄹ, ㅁ, ㅂ, ㅇ 28 (1) ○ (2) × (3) × 29 모음, 없는 30 (1) ○ (2) × (3) ○ (4) × (5) × (6) ○ 31 [ㄹ], [ㅂ] 32 [ㅋ], [ㅌ], [ㅊ] 33 된소리 34 자음, 용언, [ㄹ] 35 모음, 없는 36 (1) [나치] (2) [꼬치/꼬체] (3) [바치] (4) [수체] (5) [꼬치라도] 37 (1) [늑찌], [늘꼬] (2) [바틀], [바다래] (3) [다출], [도출] (4) [거도슬], [허두스미] 38 (1) ○ (2) × (3) ○ (4) ○ 39 드러나오, 무난하게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상황 맥락: ㉠, ㉡, 사회·문화적 맥락: ㉢, ㉣, ㉤, ㉥ 06 ⑤ 07 ④ 08 ② 09 자칫 잘못하면 뭉뚱하게 있다는 것 10 ㉢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는 ‘그런데, 하지만(그러나, 반면에)’ 등이 있다. 이러한 접속어를 활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담화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 11 ④ 12 ② 13 ② 14 ㉠: 통일성, ㉡: 응집성 15 ③ 16 ① 17 ③ 18 ④ 19 (1) [ㄹ] (2) [ㅂ] (3) [ㄱ] (4) [ㄷ] 20 ④ 21 ② 22 ① 23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목걸이’로, 이는 표준어를 어법에 맞게 적는(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을 따른 것이다. 24 ⑤ 25 ③ 26 ④ 27 ④ 28 ④ 29 ④ 30 ‘꼬치’는 ‘꽃이’로, ‘꼬만’은 ‘꽃만’으로, ‘꼬파’는 ‘꽃파’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 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생긴다(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01 담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면 상대와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말하는 이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02 (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를 치러 나가기 어려우니 교실에 있자는 의미이다.
- 03 (가), (나)는 민지가 한 “5분 남았는걸.”이라는 말이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04 ㉠은 성현이가 같이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의미이므로, 성현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05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 하고,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 06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기다리며 동생에게 ‘지금 몇시야?’라고 묻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 07 레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고, 엄마는 물이 샌 수도관과 관련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레오와 엄마 사이의 대화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08 지시어 앞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는 ‘싱크대 안’, ‘이거’는 ‘싱크대 안 밸브’, ‘그것’은 ‘레오가 어렸을 때 어렸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09 ‘그 단점’은 앞 문장에 제시된 찔뚱이의 단점, 자칫 잘못하면 뭉뚱하게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10 ㉢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반대, 대조의 의미를 지닌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접속어를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담화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들어갈 접속어를 두 가지 씀.	각 1점	4점
접속어를 활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담화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1 다니엘이 이해한 ‘우리’는 ‘자신과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용한 ‘우리’는 ‘자신과 대상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 12 한국에서는 ‘나의’라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써서 그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가 많다. 재현이도 어머니와 친밀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13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도 ‘시원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14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통일성과 문장들이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응집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15 아랫집에 사는 학생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담화의 통일성에 어긋난다.
- 16 ‘믿음’, ‘길이’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이다.
- 17 ㉠은 [막짜만]이 올바른 발음이다. ㉡은 [단계로]로 발음할 수도 있다.
- 18 겹받침 ‘ㄹ’은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붙다’는 [북따]라고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닭과’는 [닥따], ‘맑고’는 [말꼬], ‘진흙에’는 [진흙게], ‘옹고’는 [옹꼬]가 표준 발음이다.
- 19 겹받침 ‘ㅃ’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ㅍ]로 발음한다. 단, ‘뽕-’은 자음 앞에서 [ㅅ]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 단,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따라서 (1)은 [여덜], (2)는 [뽕:따니], (3)은 [익찌], (4)는 [일꼬]로 발음한다.
- 20 ㉠ 우리말에서 앞말의 받침이 ‘ㄷ’ 또는 ‘ㅌ’이고 뒷말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ㅌ’은 제 소릿값대로 발음된다. ㉢ ‘웃’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온차림]으로 발음된다.
- 21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이 어찌 되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떻다’를 부사형으로 바꾼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어떻게'는 '어떡해', ③, ④, ⑤의 '어떻게'는 '어떻게'로 써야 알맞다.

22 '오이소박이'→'오이소박이', '순두부찌개'→'순두부찌개', '음식에'→'음식의', '건들이지도'→'건드리지도'로 수정해야 한다.

23 한글 맞춤법 총칙에 따르면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을 수 있는데, '목걸이[목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목걸이'를 선택함.	2점	5점
어법에 맞게 적었다, 또는 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4 '싫다'는 (1)에 따라 홀받침이 대표음인 [ㅂ]으로 바뀌어 [십다]로 바뀌고, (2)에 따라 'ㄷ'이 된소리가 되어 [십따]로 발음된다.

25 '케'의 경우 [ㄱ]로도 발음하지만 '예, 레'인 경우에는 [예], [레]로 발음한다.

26 '넙다'에서 '넙'은 [넙]로 발음하지만 '넙적하다[넙적카다]', '넙둥글다[넙둥글다]'와 같을 때 '넙'으로 표기된 것은 [넙]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넙적하게'는 [넙적하게]로 발음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없-'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업따]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발-'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발브면]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결-'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 '웃'이 이어졌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가 이어졌으므로 [거도시]로 발음해야 한다.
- ⑤ '맛'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 '없-'이 이어졌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으-'가 이어졌으므로 [마답쓰면]으로 발음해야 한다.

27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쌍이다'는 [싸이다]로 발음해야 한다.

28 '닷출[다출]', '똥출[도출]', '부억에[부어케]'는 모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다.

29 'ㅎ'은 'ㄱ, ㄷ, ㅌ'와 결합하면 [ㅋ, ㅌ, ㅌ]으로 발음되므로, '낫 한때'는 [난한때] → [나탄때]로 발음된다.

30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만 적으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꽃이, 꽃만, 꽃과'를 바르게 씀.	각 1점	5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생긴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잠깐! 서술형 특강

p.138-139

01 ㉠과 같이 대답했을 때는 도서관 시설이 어떤지를 묻는 의미의 질문이고, ㉡과 같이 대답했을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하는 의미의 질문이다. 02 어울리는 대답은 ㉠, ㉡이고, 그 이유는 식당 주인의 질문이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03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지역)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4 (1) 달인이 만든 떡볶이의 맛에 대한 해설자의 질문에 ㉠과 같이 대답하면 담화의 통일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려면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떡볶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와 같이 반응해야 한다. (2) ㉡이 가리키는 내용은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 옷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담화에서 지시어를 활용하면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05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이다. 한글 맞춤법은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06 (1) ㉠: [오시], ㉡: [올파], ㉢: [부어간], ㉣: [부어케] (2)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나는 것은 ㉠과 ㉡이다. 이를 통해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질 때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ㄹ'은 원래 뒤의 자음 'ㄱ'으로 발음하는 받침이지만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막짜], [말째]로 발음한다. 08 (1) 조사 '의'는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ㄱ]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은 [우리의], [우리예]로 발음할 수 있고,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ㄹ'은 [ㄹ]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은 [히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2) '예, 레'는 [예], [레]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은 [차레]로 발음하고, 용언의 활용형인 '저, 쟈, 처'는 [저], [쟈], [처]로 발음해야 하므로 ㉣은 [가저]로 발음해야 한다. 09 오이소박이→오이소박이, 날더라고요→나뎃다고요 10 우리말에서는 앞말의 받침이 'ㄷ' 또는 'ㅌ'이고 뒷말이 'ㄹ'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에는 'ㄷ'과 'ㅌ'이 각각 'ㅌ'과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이다.

01 같은 질문이라도 담화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과 같이 대답하면 도서관 시설에 대해 묻는 의미임을 씀.	2점	4점
㉡과 같이 대답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제안하는 의미임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적절한 대답으로 ㉠, ㉡을 고름.	2점	4점
식당 주인의 질문이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주연이와 고모의 사는 '지역'이 달라서 '쌀을 사다'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 것이다. 지역은 담화의 요소 중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로 '쌀을 사다'를 쓰고, 고모와 주연이가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겼다는 내용을 씀.	3점	5점
사회·문화적 맥락(지역)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4 (1)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담화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해설자가 달인이 만든 떡볶이의 맛과 관련된 질문을 했으므로 손님은 떡볶이의 맛과 관련된 대답을 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과 같이 대답하면 담화의 통일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으로 떡볶이의 맛과 관련된 반응을 제시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앞 해설자의 말에서 알 수 있으며, 지시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담화를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가리키는 내용을 적절히 씀.	2점	5점
지시어를 활용하면 담화를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담화의 응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어법에 맞는 표기로 ㉠을 고름.	1점	3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1) ㉠, ㉡은 '웃', '부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이', '에'가 이어졌으므로 [오시], [부어케]와 같이 발음해야 한다. ㉢, ㉣은 '웃', '부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과'나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뜻이 있는 '안'이 이어졌으므로 [온짜], [부어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 (2) 우리말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면 받침이 바뀌지 않고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 ㉡의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씀.	2점	5점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7 겹받침 'ㄹ'은 원래 'ㄱ'으로 발음되지만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올바른 발음으로 각각 [막짜], [말깨]를 씀.	각 1점	4점
겹받침 'ㄹ'은 원래 'ㄱ'으로 발음하는 받침이지만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8 (1)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와[ㅣ]로 발음한다. 또한 조사 '의'는 [-]나 [ㄷ]로 발음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조사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ㄷ]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은 [우리의], [우리에]로 발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은 [히망]으로 발음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2) '예, 레'는 [예], [레]로 발음하고, 그 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할 수 있다. 또한 'ㄱ'은 [ㄱ]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활용형인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예, 레'는 [예], [레]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은 [차레]로 발음한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용언의 활용형인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해야 하므로 ㉡은 [가저]로 발음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오이소박이'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또한 '낱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고, '낱다'는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식당을 비교할 때는 '낱다'로 표현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오이소박이'를 '오이소박이'로 고쳐 씀.	1점	2점
'낱더라고요'를 '낫더라고요'로 고쳐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0 우리말에서는 '발이'가 [바치]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앞말의 받침이 'ㄷ' 또는 'ㅌ'이고 뒷말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에는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앞말의 받침이 'ㄷ' 또는 'ㅌ'이고 뒷말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에는 'ㄷ'과 'ㅌ'이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발음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4 | 우리가 만나는 매체

01 매체의 표현 방법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2

1 (1) × (2) ○ 2 ③ 3 ⑤

- 매체를 통해 표현할 때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그래프는 수치의 증가·감소 추세나 두 가지 수치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그래프는 두 수치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드러낼 수 있다.

소단원 체크

p.143~146

1 ③ 2 ①, ⑤ 3 지도, 공감 4 증가(변화) 5 ⑤ 6 ③ 7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8 일대일 기부 방식 9 ④ 10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11 ③, ④ 12 비유적

- 1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달콤한 간식을 넣어 두고, 이를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달콤 창고'라는 이름을 붙였다.
- 2 <자료 1>을 통해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끌어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3 <자료 2>는 달콤 창고가 확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지도로, 이를 통해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료 3>에서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변화)하는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 5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 2015년에는 22포인트까지 치솟은 것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경향은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 7 글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표현했다.
- 8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은 고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주는 일대일 기부 방식을 도입하자 손님 이 늘어났다.
- 9 '착한 소비'는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 움직임이다.
- 10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를 발생시켰다.
- 11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2 이 글은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시험 포인트

p.143~146

- | | |
|--------------|-----------------|
| 01 힘, 익명, 경쟁 | 02 고통, 증가, 증가 |
| 03 가치, 합리적 | 04 이기심, 상실, 이타심 |
| 05 투표용지, 미래 | |

교과서 날개

p.143~146

1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2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사람들이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생산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 한눈에 보기

p.147

착한 소비, 그래프

소단원 마무리

p.148

익명, 증가, 기부, 이타심, 미래, 관심, 확산, 공감, 증가, 증가, 그래프, 착한 소비, 증가

생각 모으기 매체, 시각 자료, 효과, 증가, 심각성

학습 활동 엮보기

p.149~151

간식, 소비, 이기심, 반성, 이타심, 기업, 사회, 미래, 독자, 생생, 확산, 공감, 실천, 이해, 인상적, 증가, 비교, 한눈, 정확, 추세, 한눈, 투표용지, 실천, 인상적, 의문형, 관심, 압축적, 점층적, 강조, 사진, 지도, 그래프

학습 활동 응용 문제 | p.149~151

1 소외 계층 2 ① 3 ③ 4 투표용지 5 ③, ⑤ 6 ③ 7 ⑤ 8 ① 9 ②

- 1 일대일 기부는 상품 등을 소비할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 계층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다.
- 2 '달콤 창고'와 '일대일 기부'는 자신의 것을 나누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 3 <자료 1>은 달콤 창고가 된 지하철의 물품 보관함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이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하며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4 이 글은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인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대어 표현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 5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6 <자료 4>와 <자료 5>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과 국내 공정 무역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수치의 증가나 감소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할 때에는 그래프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8 지도를 연속 제시하여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달콤 창고의 수를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 9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착한 소비가 기업, 사회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단원 종합 문제

p.152-153

-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 ㉡ 06 호모 에코노미쿠스 07 ⑤ 08 사람들이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생산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01 (나)에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이 글은 <자료 2>의 지도를 통해 달콤 창고가 확산하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자료 4>의 그래프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료 5>를 통해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이 급증한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03 ㉠은 기부에 참여하는 가계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전국 기부 가계의 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가 가장 적절하다.
- 04 이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으로,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다.
- 05 (나)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6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용어를 통해 그동안 경제학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강조해 왔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 07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착한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 08 사람들이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생산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발표와 매체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4

1 계획, 자료, 구성 2 (1) ○ (2) × 3 ⑤ 4 ④

- 1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 계획하기 - 자료 조사하기 - 내용 구성하기'의 단계를 거친다.
- 2 자료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발표에서 전달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야 하며, 발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매체 자료는 청중이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3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면 통계 수치를 나타낼 때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다.
- 4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봐요

p.155-165

실천, 실태, 도입, 전개, 정리, 소개, 핵심 정보, 요약, 흥미, 설문 조사, 쓰레기, 정돈, 꽃밭, 의견, 쓰레기, 주변 환경, 지저분한, 그래프, 사진, 동영상, 주제, 목적, 요약, 표, 그래프, 동영상, 면담, 사진, 실험 결과, 구체적

소단원 체크

p.155-165

1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2 ④ 3 ②, ④ 4 ① 5 ③, ⑤ 6 ①, ⑤ 7 ④ 8 ① 9 ① 10 ④ 11 실태, 방법, 실천 12 ④ 13 ①, ③ 14 ③ 15 ④ 16 ⑤ 17 ② 18 ② 19 게릴라가 드님 20 ③ 21 ① 22 ⑤ 23 쓰레기 24 ② 25 ③ 26 ② 27 ㉠-㉡-㉢-㉣ 28 ③ 29 ③ 30 ③ 31 ② 32 ③ 33 ⑤

생각 모으기

핵심 정보, 구성, 판단, 핵심 정보, 짜임새, 매체 자료

- 1 해원이의 모둠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다.
- 2 해원이의 모둠은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자는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 3 해원이의 모둠은 발표에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직접 실천할 활동, 우리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표 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 5 해원이의 모둠은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 6 해원이의 모둠은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 환경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 7 벽이 깨끗한 골목길에서는 33퍼센트의 사람들만이 광고지를 길에 버렸지만,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 69퍼센트가 광고지를 길에 버린 것을 볼 때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신문 기사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버려진 공간에 식물을 심어 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해원이의 모둠은 학교에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꽃밭을 만드는 실천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
- 9 해원이의 모둠은 전개 부분에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발표하고자 했지만 다른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기로 하지는 않았다.
- 10 해원이의 모둠은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설문 조사, 현장 조사, 인터넷과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해 조사했다.
- 11 해원이의 모둠은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전개 부분의 내용 구성을 수정했다.
- 12 해원이의 모둠이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환경을 관리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면 학교 환경 실태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 13 해원이는 도입 부분에서 발표 주제와 발표 내용의 구성을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 14 해원이의 모둠은 학교 환경의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는 학교의 사진을 제시했다.
- 15 우리 학교의 환경이 매우 더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60명 중 15명으로 25퍼센트이다.
- 16 해원이의 모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와 그래프를 활용했다.
- 17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은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함부로 버린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18 해원이의 모둠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의 가장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들기로 했다.
- 19 게릴라 가드닝은 ‘게릴라’와 ‘가드닝’을 합친 말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버려진 공간에 남몰래 식물을 심어 환경을 개선하

는 시민운동을 일컫는다.

- 20 해원이의 모둠이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든 뒤, 학생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 21 ㉠은 발표의 정리 부분으로,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22 울주군청에서 게릴라 가드닝을 실시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게릴라 가드닝’이 학교 외에 다른 곳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 23 학생들이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쉼터와 운동장 구석에는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었다.
- 24 해원이 모둠의 발표에서는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을 담은 사진을 제시한 것이지 대학 교수의 인터뷰 동영상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 25 꽃밭을 만든 후 학생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26 학교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터뷰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학교 환경의 실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27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주제를 정하고 발표 계획을 세운 후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또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 28 너무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발표에 대한 집중을 떨어뜨리고 산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에 꼭 필요한 자료만 선별한다.
- 29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후,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용 구성하기’ 단계이다.
- 30 제시된 주제로 발표를 할 때, 유기 동물과 야생 동물을 비교하는 사진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발표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1 매체를 활용한다고 해도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밝혀야 한다.
- 32 유기 동물의 수치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하면 유기 동물의 증가·감소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33 무조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소단원 마무리

p.166

계획, 주제, 도입, 전개, 정리, 매체 자료, 실태, 사진, 동영상, 주제, 요약, 짜임새, 청중, 설득력

01 ② 02 ② 03 ② 04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9 ① 10 ④ 11 발표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매체가 활용되었는지 판단하고,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01 (가)에서 누가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 02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직접 조사해서 보여 주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발표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혜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혜원의 모둠은 학교 환경 사진을 통해 학교 환경의 실태를 제시하는 내용을 구성했다.
- 04 도입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전개 부분에서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짜임새, 핵심 정보'를 포함하여 서술함.	1점	5점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혜원의 모둠이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학생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을 찾아가 본 결과 과자 봉지나 빈 병 등이 여기저기 많이 버려져 있어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았다.
- 06 ㉔은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가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가), (나)에서는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의 출처를 밝힌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 08 혜원의 모둠은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사진, 게릴라 가드닝을 실천한 실제 사례 사진, 학교 꽃밭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시하고, 게릴라 가드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나,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09 벽이 깨끗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광고지를 더 적게 버린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결과를 통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혜원의 모둠은 '게릴라 가드닝'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의 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든 것이지 마을 곳곳에 꽃밭을 만든 것은 아니다.
- 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발표의 목적과 대상,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적절한 매체가 활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하고, 매체 자료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설득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발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매체가 활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체크샘과 함께 선택 학습

p.170-173

활동 1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⑤ 2 ①, ④ 3 ④

- 1 이 기사에는 국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아 수입 명태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우리나라가 명태를 수입하는 나라와 수입량을 정리한 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2 이 기사는 제목을 통해 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가 성공했다는 기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가움을 드러낸다.
- 3 [연관 기사]를 제시하면 기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독자에게 빠르게 제공하고,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독자에게 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독자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연관 기사]를 제시한다고 해서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활동 2 발표를 듣고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기

선택 학습 문제 | 1 ⑤ 2 ③ 3 ⑤

- 1 이 발표는 식사 시간이 짧아질수록 오히려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2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즐겁게 식사를 즐기도록 노력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사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3 설문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5~15분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등 지나치게 밥을 빨리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깐 어휘 학습

p.174

1 매체의 표현 방법

감정, 감상, 비평, 판단

2 발표와 매체

표현, 표출, 발언

대단원 마무리 체크

p.175-176

01 언어, 동영상 02 (1)-㉠ (2)-㉡ (3)-㉢ 03 관심, 효과적 04 적절, 효과 05 착한 소비 06 달콤 창고 07 (1)○ (2)× (3)× (4)○ 08 일대일 09 착한 소비 10 사진, 생생, 관심 11 지도, 공감 12 ㉠, ㉡, ㉢, ㉣ 13 호모 에코노미쿠스 14 환경 파괴 15 이타심 16 이기적, 가치 지향적 17 투표용지, 인상적 18 ㉡-㉢-㉠-㉣ 19 (1)-㉠ (2)-㉢ (3)-㉡ 20 핵심 정보, 짜임새, 매체 자료 21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22 도입, 전개, 정리 23 주제, 실태, 방법, 실천 24 ㉠, ㉡, ㉢ 25 주제 26 쓰레기 27 쓰레기 28 주변 환경 29 게릴라 가드닝 30 꽃밭 31 쓰레기 32 요약, 핵심 정보 33 사진, 생생 34 인식, 실태 35 효과적, 매체 자료

대단원 종합 문제

p.177-181

01 ② 02 ③ 03 정글 04 ⑤ 05 ③ 06 ② 07 실천 행위, 인상적 08 제삼 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09 ⑤ 10 ③ 11 ③, ④ 12 ④ 13 ④ 14 ① 15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16 ⑤ 17 ④ 18 과식,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이 커짐. 19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빨리 밥을 먹는다는 것을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정리한 표를 통해 제시했다.

- 01 이 글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다.
- 02 (가)는 달콤한 간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인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과 달콤 창고가 확산되는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제시하면 글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3 (다)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각박한 현실을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에 비유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 04 ㉡은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과 같이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난 현상을 의미한다.
- 05 (나)에서 착한 소비가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 사례, (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 그동안 경제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봤던 관점,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발생시킨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된 기업이 성공한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 06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국 기부 가게의 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연도별 전국 기부 가게의 수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07 (라)에서는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비유하여 착한 소비가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8 2000년대 초반 제삼 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커피 회사는 공정 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제삼 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9 발표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주제와 관련이 깊고,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10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원이 모두가 직접 실천할 활동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지만 깨끗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를 소개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 11 해원이의 모둠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결과 자료를 수집했으며, 학교 환경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꽃 화분을 설치해 쓰레기 투기 근절에 나선 울산 울주군의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조사했다.
- 12 발표를 듣고 난 후에는 주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매체 자료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 시간을 준수하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 13 해원이의 모둠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제시하지는 않았다.
- 14 (나)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정리한 표와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지저분한 곳이라고 답한 학생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의 사진을 통해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
- 15 실험에서 사람들은 깨끗한 골목길보다 지저분한 골목길에서 광고지를 더 많이 버렸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쓰레기를 더 함부로 버린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16 명태가 단일 어종으로는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류이지만, 그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17 (나)는 한국의 동해에서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다가 2008년에는 공식적으로 어획량이 '0'이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명태 어획량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면 2008년에 공식적으로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8 (라)에서 식사를 빨리하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간식이나 다른 음식을 찾게 되어 과식을 하게 되고, 식사 속도가 빨라수록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 (다)에서는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한 표를 활용하여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밥을 지나치게 빨리 먹는다는 것을 씀.	2점	5점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정리한 표를 제시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잠깐! 사술형 특강

p.182-183

01 (1)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02 (1) 환경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2) 그 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3)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03 (1)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2) 직접 찍은 학교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 주는 표와 그래프를 통해 학교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 환경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4 (1)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2) ㉠은 발표의 정리 부분으로,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이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01 (1)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씀.	2점	4점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달콤 창고에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고, 달콤 창고의 소소한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1)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기대와 달리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를 발생시켰다.

(2)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기적 선택', '이타심'을 활용하여 서술함.	1점	3점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는 내용을 씀.	2점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 '이타심이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는 내용을 씀.	-1점	

(3) ㉠에서는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빗대 표현함으로써 착한 소비가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1) (가)에서 이 발표의 주제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임을 알 수 있다.

(2) (가)에서는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진 지저분한 학교의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제시하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사용한 매체 자료가 '사진'이라는 것을 씀.	1점	4점
학교 환경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3) 매체 자료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적절한 매체 자료를 선택했는지, 매체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나)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 주는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학교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 환경 실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사용한 매체 자료가 표와 그래프라는 것을 씀.	2점	5점
학교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 환경 실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1) 사람들이 깨끗한 골목길보다 지저분한 골목길에 광고지를 더 많이 버린다는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결과를 통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함.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은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청중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발표의 정리 부분임을 씀.	1점	4점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 | 문학의 눈

01 시의 목소리_엄마걱정

서술형 특강

p.02

답으로 가는 길 | 1 '나' 2 찬밥 3 어둡고 무서워 4 잊목

1 빈방에서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며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2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3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잊목 4 어른이 된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고 있다.

논술형

5 예시 답 1연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의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아이의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내용을 씀.	2점	10점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글픔'이라는 시의 주제를 씀.	3점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01 시의 목소리_고향

서술형 특강

p.03

답으로 가는 길 | 1 '나' 2 아무개 씨 3 막역지간 4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1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앉아누워,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다. 2 의원의 손길을 통해 마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따스함, 반가움,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논술형

3 예시 답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라보지만, <보기>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보기>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02 이야기 속 시선_동백꽃

서술형 특강

p.04-05

답으로 가는 길 | 1 인칭 주인공 시점 2 눈치가 없고 무뚝뚝함. 3 감자 4 마름, 배재 5 분함, 무안함, 겁이 남. 6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터냐?" 7 (노란) 동백꽃 8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박한 사랑

1 '나'에 대한 이성적 관심과 호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양해를 하는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3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논술형

4 예시 답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통해 상황을 전달되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독자도 아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나'가 모르는 채로 사건을 전달하면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사건을 전달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5 소작인의 아들인 자신이 마름인 점순이네 수탈을 죽였기 때문이다. 6 다시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의도이다. 7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적극적이고 당돌하다(조속하다).

논술형

8 예시 답 말하는 이가 점순이로 달라지면서 (나)에 비해 상황에 대한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말하는 이가 점순이로 달라졌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나)에 비해 상황에 대한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다는 효과를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선택 학습

p.06

답으로 가는 길 | 1 농민 2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자. 3 동네 꼬마들이 흉장난을 하는 것 4 곱슬머리 소년(아이)의 엄마 5 흉강이지 6 생명의 모태

1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짓자고 제안하는 농민이다. 2 서로 도와가며 근면하게 농사일을 하자. / 날이 새었으니 열심히 농사일을 하자. 3 듣는 이와 처지가 같은 농민을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듣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4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흉냄새 나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논술형

5 예시 답 말하는 이가 농민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양반)으로 바뀌면서 (가)에서의 권유의 느낌이 <보기>에서는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독촉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말하는 이가 농민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양반)으로 달라졌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권위에서 명령과 독촉의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6 아이가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 흙을 몸에 묻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7 흙(자연)의 소중함과 가치

논술형

8 예시 답 아이들이 흙과 가까이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흙이 없는 공원이나 놀이터에서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없으니깐요.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공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제시됨.	4점	10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의 이유가 윗글의 내용과 적절하게 연관되어 제시됨.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2 | 세상과 주고받는 글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서술형 특강

p.08-09

답으로 가는 길 | 1 구분 2 하지만 3 통각 4 인과, 대조 5 예측 불가능성 6 예시

1 간지럼의 특성과 원인에 관한 정보 전달 2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3 인과-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할, 예시-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논술형 4 예시 답 ㉔에서는 간지럼과 가려움의 특성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간지럼과 가려움을 비교·대조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 줌으로써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하여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 내용을 씀.	2점	10점
비교와 대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씀.	3점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하여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5 '내가 나를 간질일 때'에는 소뇌의 반응이 적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나를 간질일 때'에는 간질이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㉔: 내가 나를 간질일 때, ㉔: 남이 나를 간질일 때 7 간지럼을 통해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 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다.

논술형 8 예시 답 ㉔에서는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㉔에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씀.	2점	10점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설명 방법임을 씀.	3점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02 설명하는 글 쓰기

서술형 특강

p.10-11

답으로 가는 길 | 1 개요 2 질문 3 분석 4 그래서(따라서, 그러므로) 5 관리하는 6 출처

1 ㉔: 중간 2.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㉔: 중간 3.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2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읽는 이가 머리카락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3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이모표피가 벌어지거나 떨어져서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논술형 4 예시 답 ㉔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고쳐쓰기의 원리 중 '삭제'를 선택함.	4점	10점
㉔이 문단의 중심 내용(글의 주제)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5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했다.

6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7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다.

논술형 8 예시 답 (나)에서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머릿결에 좋은 음식과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에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씀.	3점	10점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을 씀.	5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선택 학습

p.12

답으로 가는 길 | 1 따라서(그러므로) 2 대조 3 특성

1 내향적인 사람은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세우기 등과 연관이 있는 뇌 영역을 자주 사용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운전, 듣기, 보기 등과 연관이 있는 뇌 영역을 자주 사용한다. 2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논술형 3 예시 답 (가)는 처음, (나), (다), (라)는 중간, (마)는 끝부분에 해당한다.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마)를 '처음-중간-끝'으로 바르게 나눔.	3점	10점
중간 부분에서 주로 사용한 설명 방법으로 '대조'를 씀.	2점	
중간 부분에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3 | 즐거운 언어생활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서술형 특강

p.13-14

답으로 가는 길 | 1 지각하기 5분 전 2 수업 시작하기 5분 전 3 쌀을 사다 4 우리 5 통일성, 응집성 6 맛 7 그런데(그러나, 하지만)

1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각하지 않는다. **2**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를 치러 나가기 어렵다. **3**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4** 다니엘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이해했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사용했다.

논술형 5 예시 답 (라)에서 다니엘은 ‘우리’라는 말이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임을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라)에서 다니엘이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6 담화의 통일성은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담화의 응집성은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쌀떡볶이는 자칫 잘못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8**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 옷을 자랑한다는 점 **9**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논술형 10 예시 답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를 통해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주제와 다른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접속어나 지시어를 사용하여 문장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담화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담화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담화의 응집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를 통해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02 정확한 발음과 표기

서술형 특강

p.15-16

답으로 가는 길 **1** 숨이불 **2** ㄱ, ㄴ, ㄷ, ㄹ, ㅁ, ㅂ, ㅇ **3** [가저] **4** 있는, 꼬뒤에 **5** ㅋ, ㅌ, ㅊ, 일코 **6** 쓰러질

1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어법에 맞게 적는 방법 **2** [부억], [히을], [숨] **3**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이], ·희망: [히망] **4** ·차례: [차례], ·예의: [예의], [예이]

논술형 5 예시 답 ㉔는 [익찌], ㉕는 [일꼬], ㉖는 [일근]이 표준 발음이다. 이 중 ㉖의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는데, 이처럼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야 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㉔~㉖의 표준 발음을 정확히 씀.	각 1점	10점
㉖가 제 소릿값으로 발음됨을 언급함.	2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질 때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6 ·㉑: [꼬찌], ·㉒: [거시지], ·㉓: [발미테서] **7** ㉑~㉓의 받침 뒤에 이어진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다. **8** ㉔은 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뀐다.

논술형 9 예시 답 ㉔은 [바다의] 또는 [바다에]로 발음된다. 표준 발음법에서 조사 ‘의’는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㉔의 올바른 발음으로 [바다의]와 [바다에]를 씀.	각 2점	10점
표준 발음법에서 조사 ‘의’는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선택 학습

p.17-18

답으로 가는 길 **1** 수도관이 고장난 부엌 **2** 레오, 엄마 **3** 자신의 어린 시절 **4** [밥:께] **5** [국:따] **6** 음식의 맛이 좋기로

1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방법 **2** ·㉑: 싱크대 안, ·㉒: 싱크대 안 밸브, ·㉓: 레오가 어렸을 때 어땠냐는 것 **3** ‘너 어릴 때는 말썽꾸러기였지. 엄마 아빠가 걱정 많이 했잖아.’와 같이 레오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

논술형 4 예시 답 레오와 엄마의 대화는 레오와 엄마가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담화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레오와 엄마가 ‘그것, 여기’ 등의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담화의 응집성은 갖추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레오와 엄마가 서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담화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담화의 응집성을 갖추었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5 받침 ‘ㄹ’은 원래 [ㄱ]으로 발음되지만 ‘ㄹ’이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㉔은 용언 ‘꺾-’ 다음에 ‘ㄷ’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지만, ‘꺾고’는 용언 ‘꺾-’ 다음에 ‘ㄱ’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져서 받침 ‘ㄹ’의 발음이 차이 나는 것이다. **6** [이러케], 받침 ‘ㅎ’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할 때에는 뒤 음절의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 ㅌ, ㅊ]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7** ·㉔: 순두부찌개, ·㉕: 오이소박이, ·㉖: 건드리지도

논술형 8 예시 답 ㉑의 표준 발음은 [창덕궁]이고, ㉒의 표준 발음은 [덕뿌네]이다. ㉑은 ‘ㄱ’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ㄱ’이 연결되었으므로 [ㄱ]으로 발음되고, ㉒은 ‘ㄱ’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ㅂ’이 연결되었으므로 [ㅂ]으로 발음된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㉑의 표준 발음으로 [창덕궁], ㉒의 표준 발음으로 [덕뿌네]를 씀.	각 2점	10점
㉑이 발음되는 이유로 ‘ㄱ’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ㄱ’이 연결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㉒이 발음되는 이유로 ‘ㄱ’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ㅂ’이 연결되었다는 내용을 씀.	2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4 | 우리가 만나는 매체

01 매체의 표현 방법

서술형 특강

p.19-20

답으로 가는 길 1 달콤 창고 2 체감 경제 고통 지수 3 공정 무역 매출액 4 공정 무역 커피 5 호모 에코노미쿠스 6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 7 이타심

1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2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 2015년에는 22포인트까지 치솟았다. 3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논술형

4 예시 답 (다)에 제시된 매체 자료는 그래프로, 이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에 제시된 매체 자료가 그래프임을 씀.	2점	10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했다는 내용을 씀.	3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의 관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5 사람들이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6 제삼 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7 '노동 안의 경제학'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했으나,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논술형

8 예시 답 착한 소비는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라는 의미이고, 이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착한 소비는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천 행위라는 의미를 씀.	4점	10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표현 의도를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02 발표와 매체

서술형 특강

p.21-22

답으로 가는 길 1 '도입-전개-정리'의 형태 2 짜임새, 핵심 정보 3 학교 쉼터 주변, 운동장 구석 4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을 담은 사진 5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 6 꽃밭 만들기

1 '도입 부분'은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전개 부분'은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 부분'은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 2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형

3 예시 답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 주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보기>의 매체 자료가 사진임을 씀.	2점	10점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4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학생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6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친구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7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논술형

8 예시 답 발표에서 사진, 표, 그래프와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발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4점	10점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선택 학습

p.23-24

답으로 가는 길 1 인터넷 기사 2 유전 정보 3 명태 4 표 5 70퍼센트 6 과식,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이 커짐.

1 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독자에게 빠르게 제공하고,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독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 사진을 통해 독자에게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논술형

3 예시 답 한국의 명태 어획량 추이, 특히 2008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한국의 명태 어획량 추이를 보여 준다는 내용을 씀.	2점	10점
2008년에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씀.	3점	
독자가 기사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씀.	3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4 많은 학생들이 밥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먹는다. 5 식사를 시작하고 최소 15분이 지나야 활성화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6 빠른 식사 속도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여 발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논술형

7 예시 답 <자료 2>는 표로,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보여 줄 수 있고, <보기>는 원그래프로,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자료 2>는 표, <보기>는 원그래프임을 씀.	각 2점	10점
<자료 2>는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보여 주고, <보기>는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한눈에 보여 준다는 내용을 서술함.	4점	
맞춤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씀.	2점	



1 | 문학의 눈

01 시의 목소리 _ 엄마 걱정

■ 확인 문제 | p.26

① 분위기 ② 무서움

1 시인 2 화자, 서정적 자아 3 (1) ○ (2) ○ (3) × 4 빈방, 시장
5 시간 6 (1) ○ (2) ○ (3) ○ (4) × (5) ○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27

01 ② 02 ③ 03 ㉠: 운율, ㉡: 정서 04 ③ 05 ① 06 ①
07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롭고 서글펐던 어린 시절을 의미한다.

- 01 2연의 말하는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지, 엄마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찬밥'은 어린 시절 외로운 '나'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아이가 엄마와 시장 바닥에 앉아 찬밥을 먹는 장면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외로움과 쓸쓸한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 04 '배춧잎 같은 발소리'는 엄마의 발소리를 시든 배춧잎에 빗대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한 엄마가 많이 지쳤음을 표현한 것으로, 힘없고 지친 느낌을 준다.
- 05 어른이 된 말하는 이는 외롭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이로 보아 말하는 이는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린 시절의 일을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본다고 할 수 없다.
- 06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외롭고 쓸쓸한 심정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므로 이 시에는 외롭고 쓸쓸한 어른의 목소리가 가장 잘 어울린다.
- 07 ㉠은 홀로 엄마를 기다리며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을 차가운 뒤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1 시의 목소리 _ 고향

■ 확인 문제 | p.28

① 태도 ② 그리움

1 관점 2 그리움 3 상실감/쓸쓸함 4 (1) ○ (2) ○ (3) ×
5 (1)-㉠ (2)-㉡ (3)-㉢ 6 (1) 신선 (2) 아무개 씨 (3) 막역지간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29-30

01 ⑤ 02 ⑤ 03 ③ 04 ① 05 ⑤ 06 아무개 씨 07 ③
08 ③ 09 말하는 이는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과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 말하는 이는 의원의 손길에서 정겨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다.
10 ③ 11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 01 화자는 의원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뿐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다.
- 02 이 시는 의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와 의원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관님(의원)을 보조 관님(신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면서 대상과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03 '나'는 같은 고향 출신인 아무개 씨를 아는 의원을 만난 것일 뿐 '나'와 의원은 같은 고향 출신이 아니다.
- 04 이 시와 <보기>의 말하는 이는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05 ㉠에서 '나'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 따스함을 느끼고 마치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 06 '아무개 씨'는 '나'가 의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인물이다.
- 07 (가)의 말하는 이는 타향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돌아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고향에 돌아와 느끼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떠나 있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 ④ (가)는 독백과 대화로, (나)는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는 말하는 이가 표면에 드러나지만, (나)는 말하는 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 08 아무개 씨는 '나'와 의원을 이어 주는 매개체가 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의원을 '나'에게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
- 09 말하는 이는 의원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 10 ㉠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④ 직유법, ② 은유법, ⑤ 대구법

- 11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 고향에 돌아와 상실감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02 이야기 속 시선 _ 동백꽃

확인 문제 | p.31

① 서술자 ② 주인공 ③ 사랑 ④ 감자

1 서술자 2 (1)○(2)○(3)×(4)○ 3 (1) 1인칭 주인공 (2) 역순행적
(3) 소작인, 마름 (4) 눈치 4 (노란) 동백꽃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32-34

-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6 ③ 07 점순이의 말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08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양갈음하는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09 ④ 10 ④
11 소작농의 아들인 '나'가 마름 집의 수탉을 죽였기 때문이다. 12 ⑤

- 01 서술자('나')는 상대방(점순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어수룩하게 행동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02 이 글은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03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건넸으나, '나'는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점순이와 '나'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04 '나'와 점순이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와는 상관이 없다.
- 05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독자도 아는 점순이의 마음을 '나'가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6 '나'가 자기네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이유는 닭의 기운을 뺏치게 하여 점순이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다.
- 07 (마)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에서 '나'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감자를 거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08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준 감자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자기에게 무관심한 '나'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다.
- 09 제시된 글은 점순이의 입장에서 사건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순돌이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점순이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점순이를 찌려보는 순돌이의 마음은 정확

히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점순이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점순이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0 (나)의 '나도 한때는 각실각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썹이 꼭 여우 새끼 같다.'는 것을 통해 점순이에게 호감을 가졌던 '나'의 심리가 미움, 알미움의 감정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11 '나'의 가족은 마름인 점순이네의 호의에 기대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마름 집의 닭을 죽인 '나'는 그것이 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 12 이 글에서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와 점순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선택 학습 기출 예상

p.35-36

- 01 ③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말하는 이가 농민에서 양반으로 달라지면서 명령하고 독촉하는 느낌이 든다. 08 ①
09 (나)~(라)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지만, 소설의 '나'는 글쓴이가 꾸며낸 인물인 서술자이다. 10 ④

- 01 (가)의 말하는 이는 직접 호미로 논을 매고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이는 농민이다.
- 02 (가)의 말하는 이는 농민으로 듣는 이와 같은 신분이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농민이 함께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 03 중장에서는 서로 도우며 지내자는 상부상조의 덕목이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③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
④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
⑤ 봉우유신: 벼과 벼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

- 04 (나)~(라)는 수필로,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개성적으로 드러내며, 형식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꾸며 쓴 글은 소설이다.
- 05 '나'는 아이들에게 화단 내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의를 주지는 않고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 06 (가)는 청유형 어법과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07 말하는 이의 말투가 ‘가자스라’, ‘보자스라’ 같은 청유형에서 ‘가거라’, ‘주어라’, ‘보아라’ 같은 명령형으로 바뀌었다. 이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08 글쓴이는 흠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 주기 위해 흠과 함께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제시하고 있다.
- 09 수필은 ‘나’와 글쓴이(작가)가 일치하지만, 소설의 ‘나’는 글쓴이(작가)가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다.
- 10 ㉠, ㉡, ㉢, ㉣에서는 흠이 사람을 이롭게 하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나’와 증조할머니의 생각을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대단원 종합 문제

p.37~41

- 01 ② 02 ② 03 ② 04 ① 05 ④ 06 ㉢, ㉣ 07 ⑤ 08 ①
09 ② 10 아무개 씨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②, ③
16 ② 17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것은 자신의 관심과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복수인 동시에 ‘나’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관찰해 생각하던 점순이를 알뜰게 생각하게 된다.
18 ㉢, ㉣, ㉤ 19 ① 20 ② 21 ② 22 ③ 23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에 젖어 딱딱한 시멘트 벽처럼 마음이 삭막하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 01 1연에는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나’의 외로움과 무서움이, 2연에는 그러한 어린 시절에 대한 안타깝고 서글픈 심정이 드러나 있을 뿐 시적 대상의 심리 변화를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 02 어린 시절의 ‘나’가 혼자 찬밥으로 저녁을 챙겨 먹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에서 ‘찬밥’은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03 ㉠은 말하는 이가 기다림에 지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무를 팔러 나간 엄마의 지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4 (가)는 독백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나)는 상대에게 권유하는 어조가 드러난다.

Clinic 오답 강의

- ② (가)와 (나) 모두 말하는 이가 표현에 드러난다.
③ (가)는 정서 표현을, (나)는 교화를 창작 목적으로 한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가 나타나는 것은 (가)이다.
⑤ (나)는 형식적 제약이 있는 시조이다.

- 05 (나)의 초장에서는 날이 밝자 일하러 가자고 하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농민끼리 서로 돕는 모습이, 종장에서는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키우는 모습이 나타날 뿐 대상의 부정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6 (나)에서는 듣는 이와 같은 처지인 말하는 이를 내세워 서로 도와가며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7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대해 따스함과 친근함, 그리움을 느끼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대해 상실감, 쓸쓸함을 느낀다.
- 08 (가)에는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어조 또한 비교적 담담한 어조이다.
- 09 ‘나’와 의원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아무개 씨를 알고 있을 뿐이다.
- 10 아무개 씨는 ‘나’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며 의원과는 막역지간의 친구로, ‘나’와 의원은 아무개 씨를 통해 친근감을 형성한다.
- 11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고향에서 상실감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나)에서 고향은 과거와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말하는 이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12 (가)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제시한 후 (나)에서 ‘나흘 전’ 일어난 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13 (나)에서 ‘나’는 자신의 수탈을 괴롭히는 점순이네 수탈을 보자 매우 화가 나서 점순이네 수탈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헛매질로 때어만 놓았다.
- 14 <보기>는 주인공이 아닌 다른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점순이와 순돌이(나)의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점순이의 행동과 의도가 좀 더 알기 쉽게 전달되고 있다.
- 15 감자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드러낸다.
- 16 이 글에서는 점순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의 눈치 없고 어리숙한 행동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17 점순이는 자신이 준 감자를 거절한 ‘나’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닭싸움을 붙인다. 또한 닭싸움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를 본 ‘나’는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점순이를 알뜰게 생각하게 된다.
- 18 이 소설에서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나’와 점순이 간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소재이다.

- 19 ㉠의 눈물은 점순이의 행동에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표출된 것이고, ㉡은 점순이네 수탉을 죽인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다.
- 20 이 글은 흙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멀리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염려하며 자연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21 글쓴이는 어렸을 적 흙이 질편한 증조할머니 댁에서 지냈고, 현재는 흙을 접하기 어려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 22 ‘아이 엄마’는 아이가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반면, ‘나’는 흙 놀이를 자연을 알게 하는 공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증조할머니는 ‘나’가 어렸을 때 마음껏 흙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 23 ㉢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에 젖어 이웃과도 서로 왕래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삭막하게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42-43

- 01 (1) 시인 (2) 분위기 (3) 관점 02 (1) × (2) × (3) ○ 03 엄마 04 (1) ○ (2) ○ (3) ○ (4) × 05 (1) 찬밥 (2) 잊음 (3) 빗소리 (4) 배춧잎 06 빈방, 무서움, 어른, 화상, 서글픔 07 (1) 정주, 복관 (2) 신선 (3) 손길 08 (1) × (2) ○ (3) × (4) ○ 09 아무개 씨 10 따스함, 친근한 11 (1) × (2) ○ (3) ○ (4) × 12 (1) ○ (2) × (3) ○ 13 (1) 1인칭 관찰자 시점 (2) 3인칭 전지적 시점 (3) 1인칭 주인공 시점 (4) 3인칭 관찰자 시점 14 감자, 씨앗, 고추장, 호드기, 단매, 두려움, 동백꽃 15 (1) × (2) ○ (3) ○ (4) × 16 (1) 감자 (2) 노란 동백꽃 (3) 닭싸움 17 여우 새끼 18 소작인, 마름, 눈치, 솔직, 적극적, 호감 19 (1) ○ (2) × (3) ×

2 | 세상과 주고받는 글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확인 문제 | p.44

① 공통점 ② 간지럼

- 1 (1) 비교 (2) 구분 (3) 예시 2 (1) 구분 (2) 인과 3 ㉠, ㉡ 4 (1) 유대감 (2) 방어 능력 5 예측 불가능성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45-46

- 01 ② 02 ④ 03 ② 04 ㉠, ㉡ 05 ① 06 ⑤ 07 간지럼을 타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08 ②

- 01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다. ①, ③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 ④, ⑤는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 02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글의 전개 방법을 제시한다. ②, ⑤는 글의 중간 부분, ①, ③은 글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3 <보기>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나)에서는 구분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04 간지럼의 원인을 과거에는 통각으로 여겼으나 척수가 손상된 사람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을 통해 현재에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을 유력한 후보로 하여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 05 (마)의 내용을 통해 간지럼은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6 (나), (다)에서는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의 차이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07 (다)의 로봇으로 간지림은 실험에서 로봇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면 실험 참가자가 간지럼을 타지 않았지만,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지럼을 탄 것을 통해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의 ‘예를 들어’를 통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설명 방법인 예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정의, ㉢은 과정, ㉣는 비교, 대조, ㉤는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확인 문제 | p.47

① 특성 ② 재구성 ③ 구조

- 1 (1) 분석 (2) 정의 (3) 예시 2 (1) 삭제 (2) 대치 (3) 추가 (4) 재구성 3 정보 4 (1) 인과 (2) 예시 5 ㉠, ㉡, ㉢, ㉤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48-49

- 01 ③ 02 • 글을 쓰는 목적: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 글의 예상 독자: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하는) 친구들 03 ㉠ 04 ③ 05 ㉠, ㉡ / ㉢에서는 빛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고, ㉤에서는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06 ⑤ 07 ③ 08 ③ 09 ⑤

- 01**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글이므로 끝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설명문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02** 정안이는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 03** <보기>의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에서 머리카락의 구성 요소로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을 제시한 것에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 04** ㉡에서 머릿결을 위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다.
- 05** ㉢에서는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 ㉣에서는 미용실 원장님과 의 면담을 통해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06** 글을 쓸 때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므로 참고 자료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7** (다)의 '따라서'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또,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에 두 가지 중심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라)의 '그런데'를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등으로 수정해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된다.
 ⑤ (마)에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08** (나)의 마지막 문장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에서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머릿결이 나빠지는 원인을 설명했다.



선택 학습 기출 예상

p.50-51

-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성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 **06** ① **07** ④ **08** ① **09** 예를 들어 **10** 그런데 ~ 보인다. **11** ②, ③ **12** ③

- 01** 이 글은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답을 제시하고 있다.
- 02** (마)에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 03** (가)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나)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 (다)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04** ㉠의 뒤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에는 '반면'이, ㉡의 뒤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에는 '따라서'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05** (마)에서 글쓴이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06** 이 글은 유명한 추리 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스라는 인물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다.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셜록 홈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면모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07** 셜록 홈스는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에 등장하는 탐정이다.
- 08** (가)에서는 의뢰인의 겉모습만 보고 직업을 알아내거나 길에서 주운 모자만으로 모자 주인의 처지, 성격을 정확하게 추리해 낸 일 등의 예를 들어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가진 홈스를 설명하고 있다.
- 09** ㉠의 앞에는 홈스가 범죄와 관련 없는 분야에 무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 뒤에는 홈스가 범죄와 관련 없는 분야에 무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10** <보기>는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그런데 ~ 보인다.'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홈스와 그 외의 분야에서는 무지한 홈스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1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을 쓰려는 학생에게는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12** <보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글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으므로 글쓰기의 단계 중 고쳐쓰기와 관련이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p.52-56

-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① **07** ④ **08** <보기>와 달리 ㉡에서는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예측, 행동, 피드백'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09** ④ **10** ② **11** ④ **12** ②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③ **18** ③ **19** ⑤ **20** ⑤

- 01 이 글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배제하고 지식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문으로,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한다.
- 02 간지림이 가려움보다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
- 03 (나)에서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구분을 활용하여 간지러운 느낌을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04 (다)에서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의 특성을, (라)에서는 웃음이 나는 간지림의 특성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05 (가)는 간지림을 타게 된 이유를 인간의 진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 06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간지림을 타는 것으로 보아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간지림을 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에서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간지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 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 과학 분야에서 간지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08 설명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설명 대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09 (라)에서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머릿결을 나빠지게 하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10 글에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1 ㉡에는 문맥상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설명 방법은 정의로,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이다.
- 13 (나)에서는 머리카락을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라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에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으나, 과정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③ 정의의 방법으로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은 (나)이다.
- ④ (라)에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마)는 설명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머리카락 관리 방법은 (라)에 제시되어 있다.

- 14 ㉡은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닿으면’으로 바꿀 수 있다.

- 15 (라)에서는 예시의 방법으로 머릿결에 좋은 음식과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16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은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문장이다. 이 글은 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일성이 높은 글이다.
- 17 (가)~(마)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18 (가)~(마)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각기 다른 강점이 있으므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19 ㉠에서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록 홈스의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면 설명 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0 ㉠에는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설명 방법인 예시가 사용되었다. ① 정의 ② 대조 ③ 구분 ④ 분석



대단원 마무리 체크

p.57-58

- 01 (1) 예시 (2) 인과 (3) 구분 (4) 정의 (5) 분류 (6) 대조 (7) 비교 (8) 분석
- 02 간지림 03 대조 04 가려움, 간지림 05 간지림, 가려움
- 06 ㉠, ㉡ 07 (1) × (2) ○ (3) ○ (4) × 08 가려움 09 (1) 유대감 (2) 방어
- 10 (1) 없을 (2) 예측 불가능성 11 (1) 통합 과정 (2) 예측 불가능성, 인공 지능
- 12 (1) 인과 (2) 인과 (3) 예시 13 특성 14 (1)-㉡ (2)-㉠ (3)-㉠ (4)-㉡
- 15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16 (1) 전체 (2) 주제 (3) 문장, 문단 (4) 표현
- (5) 단어 17 (1) 완성도 (2) 효과적 18 (1) 정보 (2) 독자 (3) 자료 (4) 설명 방법
- 19 대치 20 삭제,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21 (1) 예시
- (2) 처리하는 → 관리하는 (3) 또(또한) 22 ㉠, ㉡, ㉢, ㉣

3 | 즐거운 언어생활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 확인 문제 | p.59

- ① 상황 ② 치아

- 1 문장 2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3 상황, 사회·문화적 4 통일성, 응집성 5 만족
- 6 ㉠ 7 쌀, 돈, 돈, 쌀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60-61

- 01 •유미: 같이 시험공부를 하자고 제안한다. •성현: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떨지 제안한다. 02 ③ 03 다니엘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우리'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04 ⑤ 05 ⑤ 06 •아빠: 음식이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다. •초등학생: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 07 ① 08 ③ 09 ② 10 ②

- 01 유미가 성현이에게 같이 시험공부를 하자고 제안하고, 성현이는 유미에게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떨지 제안하고 있다.
- 02 "5분 남았는걸."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담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즉 상황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 03 사회·문화적 맥락(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 04 ①은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의 '우리 집'도 '나의 집'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대상을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나머지는 '우리'를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사용한 경우이다.
- 05 도시에 사는 주연이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돈을 주고 쌀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농촌에 사는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 지역이 달라 주연이와 고모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 06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에도 시원하다는 말을 사용한다.
- 07 (가)에서는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높였다. 다만, 손님의 '몇 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주인 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는 달인의 떡볶이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담화의 주제에서 어긋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 08 '그것'은 지시어로, 담화에서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하면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 09 서현이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되어 윗집에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다.
- 10 (나)는 윗집의 층간 소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성에 어긋난다.

02 정확한 발음과 표기

확인 문제 | p.62

① 의미 ② | ③ ㄱ

- 1 소리, 형태 2 발음, 전통성 3 ㄱ, ㄴ, ㄷ, ㄹ, ㅁ, ㅂ, ㅇ 4 (1) [온]
(2) [오시] (3) [오뒤] (4) [온차림] 5 모음, 없는 6 ㄹ, ㅂ 7 ㄱ, ㄱ
8 (1) ○ (2) ○ (3) × (4) × (5) ×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63-65

- 01 ⑤ 02 ㉠: [꼰또], ㉡: [기부니], ㉢: [조타]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북따], [불꼬] 18 ④ 19 ③ 20 ⑤
21 ③ 22 ②

- 01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은 '지붕, 무덤, 며칠'이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은 [기리, 우슴, 우돔]으로 발음되는 것을 '길 이, 웃음, 웃웃'으로 적은 것이다.
- 02 제시된 문장에서는 꽃도[꼰또], 기분이[기부니], 좋다[조타]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 03 우리말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의 자음만이 받침에서 발음된다. '술'은 [숯]으로 발음된다.
- 04 '옷[온], 옷에[오세], 옷차림[온차림], 옷 안[오단], 옷 위[오뒤]'로 발음된다. 즉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뜻이 없는 말이 이어진 '옷에'만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05 '빛으로[비츠로]'는 '빛'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으로'가 이어져서 '츠'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밥'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이 이어져서 [바뷔]로 발음된다.
② '옷'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아 [온]으로 발음된다.
④ '바깥'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져서 [바깡또]로 발음된다.
⑤ '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이 이어져서 [쇼단]으로 발음된다.

- 06 '옳다'에서 받침 'ㅌ' 중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된다는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은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진 경우이다.
② 겹받침 'ㅌ' 중 'ㄹ'이 남은 것은 뒤엣것이 남은 것이다.
④ ㉢은 'ㅂ'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진 경우이다.
⑤ ㉡에서 받침 뒤에 이어진 자음은 [ㄷ]으로 발음된다.

- 07 ①은 [말꼬], ②는 [밥:따], ③은 [북째], ④는 [삼:따], ⑤는 [국:따]로 발음되므로, 앞엣것이 발음되는 것은 '맑고[말꼬]'이다. 겹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나,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 08 겹받침 ‘ㄷ’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나, ‘뱃-’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되므로, [뱃:따니]가 올바른 발음이다.
- 09 ㉠은 [꼬치], ㉡은 [거시지], ㉢은 [발미테서], ㉣은 [꼬뒤에]로 발음해야 한다.
- 10 ‘많으실’은 ‘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온 경우이므로, ‘ㅎ’이 발음되지 않고 [마:느실]로 발음된다.
- 11 ㉠은 [막찌만], ㉡은 [단계로/단계로], ㉢은 [깨끄시], ㉣은 [바다의/바다에]로 발음해야 한다.
- 12 밑줄 친 단어는 모두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서 겹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각각 [늘거], [살:믄], [짚븐]으로 발음된다.
- 13 ‘나의’에서 ‘의’는 조사이기 때문에 [나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14 ‘레’는 [레]로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차레’는 [차레]로 발음해야 한다.
- 15 ‘쌓지’는 받침 ‘ㅎ’ 뒤에 ‘ㅈ’이 결합된 경우이므로, [싸치]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 16 ‘할머니에’는 ‘할머니의’, ‘들어나는’은 ‘드러나는’, ‘쏟어지는’은 ‘쓰러지는’, ‘쏘꼬’는 ‘쏟고’로 표기해야 한다.
- 17 겹받침 ‘ㄹ’은 단어 끝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18 ㉠은 [다구리], ㉡은 [거시지만], ㉢은 [나아], ㉣은 [엮:썸니다]로 발음해야 한다.
- 19 ‘곱다[곱따]’는 받침 ‘ㅂ’이 제 소릿값 [ㅂ]으로 발음된다. ‘있지[인찌], 말고[만꼬], 쫓다[쫓따], 뻗지[뻗찌]’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 20 ‘넋[넉], 앓다[안따], 넓다[널따], 훑다[할따]’는 모두 겹자음 중 앞엿것이 발음되고, ‘읽다[익따]’는 뒤엿것이 발음된다.
- 21 ‘삶을’과 ‘수탉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진 경우이므로 겹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
- 22 각각 ‘떡볶이, 입가심, 좋은, 달걀말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 01 레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엄마는 물이 샌 수도관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어 레오와 엄마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레오가 엄마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 02 ㉠은 레오가 엄마에게 어렸을 때 어땠냐고 묻는 내용을 가리킨다.
- 03 레오는 엄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엄마가 레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 04 ㉠은 [뱃:께], ㉡은 [후워니/후워네], ㉢은 [이러께], ㉣은 [점시믄]으로 발음해야 한다.
- 05 ‘음식에 맛’은 ‘음식의 맛’으로 표기해야 한다.
- 06 ‘넓다[널따]’는 ‘ㄷ’ 중 앞엿것이 발음되고 ‘넓죽한[넙쭈칸], 밟고[밟:꼬], 넓적하고[넙쩌카고], 넓둥글어[넙똥그려] 모두 ‘ㄷ’ 중 뒤엿것이 발음된다.
- 07 ‘굳이’는 앞말의 받침이 ‘ㄷ’이고,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ㄷ’이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해야 한다.
- 08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이 어찌 되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떻다’를 부사형으로 바꾼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 ‘너 어떻게 학교에 왔어?’,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 09 ‘끝으로’는 ‘끝’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끄트로]로 발음해야 하고, ‘하마의’에서 조사 ‘의’는 [의, 예]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하마의/하마예]로 발음해야 한다.
- 10 겹받침 ‘ㄷ’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단, ‘뱃-’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 11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는 원래 받침을 뒤 음절로 옮겨 [디그디]로 발음해야 하지만, 한글 자음 중 ‘ㄷ, ㅌ, ㄷ, ㄱ, ㅌ, ㅍ, ㅎ’은 특별히 [디그시], [지으시], [치으시], [키으기], [티으시], [피으비], [히으시]로 발음하기로 정했다.
- 12 각각 ‘깨끗이, 반드시, 갑자기, 슬며시’가 올바른 표현이다.
- 13 ㉡의 ‘낳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서 본래대로 되다.’의 뜻인 ‘나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01 ② 02 ⑤ 03 ⑤ 04 ·(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지 않는다(지각이 아니니 괜찮다), ·(나):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를 치러 나가기 어렵다(시간이 부족하니 나가지 말자). 05 ② 06 ⑤ 07 ⑤ 08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하게 해 준다. /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여 준다. 09 ③ 10 ⑤ 11 사회·문화적 맥락(문화) 12 ⑤ 13 (고장난) 수도관 14 너야 너였지. 15 ⑥, ④ 16 ③ 17 ⑤ 18 ① 19 제시된 단어는 모두 [ㄴ]으로 발음된다. 그 이유는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ㄱ, ㄷ, ㅌ, ㅍ'이 모두 [ㄷ]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20 ② 21 ㉠, ㉡ 22 ⑤ 23 ① 24 ⑤ 25 ④ 26 ③ 27 ㉠, ㉡, ㉢ 28 ③ 29 ④ 30 ③ 31 ② 32 ④ 33 ①

- 01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 02 두 사람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03 (나)에서는 치과에서 치아의 상태가 괜찮은지 묻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가 좀 시렸어요.”와 같이 치아의 상태에 대한 것이 적절하다.
- 04 (가)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알려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고, (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이다.
- 05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연이는 고모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
- 06 담화의 구성 요소는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07 (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08 ㉠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어로, 이러한 지시어를 사용하면 담화의 내용을 응집성 있게 제시할 수 있다.
- 09 ㉠ 뒤의 문장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고, ㉡ 뒤의 문장은 앞의 말에 이어서 추가하는 내용이며, ㉢ 뒤에는 앞의 내용에 따른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 ‘하지만(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나)에서는 중간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말하며 중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1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우리’라는 말을 외국인인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문화)이 담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12 ㉠은 ‘싱크대 안’을 가리키고, ㉡은 ‘싱크대 안 밸브’를 가리킨다.
- 13 ㉢은 앞에 나온 (고장 난) 수도관을 가리킨다.
- 14 ㉣은 앞에 나온 엄마의 말을 가리킨다.
- 15 ‘설거지, 무료’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떡볶이, 깨끗이’는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16 우리말은 받침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따라서 ‘돛’은 [돋]으로 발음해야 한다.
- 17 ‘찾-’ 뒤에 이어진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찾아’는 [차자]로 발음해야 한다.
- 18 ‘바깥에’는 ‘바깥’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바까테]로 발음해야 한다.
- 19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는 7개의 대표음만 발음되기 때문에 다른 자음이 음절 끝에 올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20 ㉠ 용언의 어간의 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ㄹ]로 발음된다. ㉡ ‘ㅎ(ㅏ, ㅑ)’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ㅎ’은 발음되지 않는다. ㉢ 겹받침 ‘ㅃ’은 [ㅂ]으로 발음되고, 받침소리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 [ㄱ, ㄷ, ㅃ, ㅆ, ㅈ]으로 발음되므로 [엮:써서]로 발음해야 한다.
- 21 ‘문안(問安)하다’는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인 ‘무난(無難)하게’가 적절하다.
- 22 ㉠은 [꼬치], ㉡은 [운:깁], ㉢은 [발미테서], ㉣은 [거시지]가 올바른 발음이다. ㉤은 ‘쫓’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꼬뒤에]로 발음해야 한다.
- 23 겹받침 ‘ㅃ’은 [ㄹ]로 발음되나 ‘뺨-’의 경우에는 [ㅂ]으로 발음되므로 ‘뺨다’는 [뺨:따]가 적절한 발음이다.
- 24 알을 낳는 것이므로 ‘낳아(낳다)’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25 ㉢은 ‘의’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의, 이]로 발음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의'가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② '의'가 조사이기 때문에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ㄹ]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③ '의'가 단어의 첫음절이기 때문에 [ㄴ]로만 발음한다.
- ⑤ 'ㄴ'의 첫소리가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ㄹ]로 발음한다.

- 26 '차레'의 '레'는 [레]로만 발음할 수 있다.
- 27 '굶다'는 [국:따], '이렇게'는 [이러케]가 올바른 발음이다.
- 28 '술이'는 앞말의 받침이 'ㅌ'으로 끝나고, 'ㅣ'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ㅌ'이 'ㅈ'으로 바뀌어 [소치]로 발음해야 한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져 받침의 'ㅌ'이 뒤 음절 첫소리에서 발음된 것이다.
- ④, ⑤ 'ㅣ' 모음이 아니라 'ㅡ' 모음이 이어진 예로 받침이 뒤 음절 첫소리에 발음된 것이다.

- 29 '없다고'는 'ㅂ' 뒤에 'ㄷ'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ㄷ'이 [ㅌ]으로 발음되어 [업:따고]로 발음해야 한다.
- 30 '알지'는 받침 'ㅎ(ㄷ)' 뒤에 'ㅈ'이 결합했으므로, 'ㅎ'과 뒤 음절의 첫소리를 합쳐서 [알지]로 발음해야 한다.
- 31 '맛있어'는 [마딘써]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발음을 고려하여 [마신힌]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 것이다.
- 32 '찌개'가 맞는 표현이므로 ④는 고칠 필요가 없다.
- 33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등이 어찌 되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떻다'를 부사형으로 바꾼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①은 '오늘도 안 오면 어떡해.'로 표기해야 한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73-74

- 01 담화 02 상황 맥락 03 사회·문화적 맥락 04 제안 05 말하는 이, 듣는 이 06 만족, 치아 07 (1)○(2)×(3)○ 08 돈, 쌀, 지역 09 통일성 10 응집성 11 주제, 지시어 12 (1)○(2)○ 13 요청 14 배려 15 (1)×(2)○(3)○(4)× 16 후련하게 17 소리, 형태 18 발음, 합리성 19 ㄱ, ㄴ, ㄷ, ㄹ, ㅁ, ㅂ, ㅅ 20 자음 21 빈, 비치 22 모음, 없는 23 의미, 다양 24 (1)○(2)×(3)×(4)×(5)×(6)×(7)× 25 (1)[진흙그로](2)[막따](3)[굴:꼬] 26 ㅎ 27 (1)○(2)×(3)○(4)×(5)○(6)× 28 (1)[히망천](2)[의사](3)[재호의/재호에](4)[민주주의/민주주의] 29 (1)일코, 꼬뒤로(2)단계로/단계로, 깨끄시

4 우리가 만나는 매체

01 매체의 표현 방법

확인 문제
p.75

- ① 흥미 ② 공감 ③ 비유적

- 1 언어, 시각 2 흥미, 표현 방법 3 (1) 사진 (2) 그래프 (3) 동영상 4 (1)○(2)○(3)○(4)× 5 가치 6 투표 용지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76-77

- 01 ③ 02 ① 03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과 국내 공정 무역 매출액이 증가한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04 ② 05 ① 06 ② 07 ③

- 01 '달콤 창고'는 지인들을 위해 간식을 넣어 두는 곳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간식을 넣어 두는 곳이다.
- 02 ㉠에 달콤 창고가 확산되는 모습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면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3 그래프를 활용하면 수치의 증가, 감소 추세나 두 가지 수치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4 (마)에서 착한 소비의 움직임이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가)에 일대일 기부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언급은 있으나 기업에서 일대일 기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 06 (가)에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제시하면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7 ㉠은 '기업→사회→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02 발표와 매체

확인 문제
p.78

- ① 주제 ② 흥미 ③ 매체 자료

- 1 (1)-㉠(2)-㉡(3)-㉢ 2 매체 자료 3 매체 자료 4 (1) 도입 (2) 요약 5 (1)×(2)○(3)○

**단원 종합 문제 기출 예상**

p.79-81

01 ⑤ 02 ③, ⑤, ⑥ 03 ④ 04 ①, ③ 05 ⑤ 06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다. 07 ② 08 ④ 09 ① 10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함. 11 ④ 12 ①

- 01 (가)는 해원이의 모둠이 발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 주는 담화로, 발표할 내용과 조사할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구상하고 있다. 또한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에 사용된 매체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발표가 끝난 후에 해야 하는 활동이다.
- 02 (가)에서 해원이의 모둠은 모둠이 실천할 활동,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깨끗한 학교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 03 제시된 학교 환경의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04 발표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 05 (가)에서는 발표자, 발표의 주제와 순서, 발표의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나 발표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06 사진을 통해 우리 학교 문제 상황을 직접 제시하면 독자가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07 (나)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50퍼센트의 학생이 학교 환경이 더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5퍼센트의 학생이 매우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 학교 환경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75퍼센트임을 알 수 있다.
- 08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75퍼센트가 학교의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면 학생들도 학교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9 (가)에서는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사진을 제시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0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에서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11 제시된 매체 자료는 해원이의 모둠이 학교의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드는 활동을 보여 주는 동영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라)이다.

- 12 발표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해원이 모둠의 발표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선택 학습 기출 예상**

p.82-83

01 ① 02 ①, ⑤ 03 ④ 04 천천히 즐겁게 식사하자. 05 ② 06 ①, ③ 07 ②

- 01 (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퍼센트는 러시아산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양식 명태라는 언급은 없다.
- 02 <자료 4>의 그래프를 통해 한국의 명태 어획량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8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3 러시아산 명태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산 명태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어획량 등으로 인해 우리 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게 되면서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게 된 것이다.
- 04 이 발표에서는 빠른 식사 속도와 그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천천히 즐겁게 식사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05 이 발표에서 식사를 천천히 하면 좋은 점에 대한 양호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6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점심시간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면 학생들의 식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하고,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 07 (라)에서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과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추가로 섭취한 열량이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과식을 하는 것과 성인병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p.84-88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④ 06 ③ 07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08 ⑤ 09 ④ 10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발표 내용에 더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친구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16 ⑤ 17 ① 18 ⑤ 19 ⑤ 20 ③

- 01 (라)에서 수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점 점 증가했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2 (나)에서는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연속적으로 제시하면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3 우리나라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 2015년에는 22포인트까지 올랐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 이와 같은 증가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04 글쓴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각박한 현실을 ‘정글’에 비유하여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5 착한 소비는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소비를 의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물질 숭배, 인간성 상실, 지나친 경쟁,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된 것이고, 일대일 기부는 인간의 이타심과 관련된 것이다.
- 07 그동안 경제학에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 왔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08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착한 소비를 하자는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 09 발표 시간은 전달하려는 주제, 발표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 10 해원이는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직접 조사해서 보여 주면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자신들의 발표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1 ‘도입-전개-정리’의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면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12 ㉠을 통해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알 수 있다. 또한 ㉠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자료이고, ㉡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 꽃밭을 만든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료이므로, ㉠은 전개 3, ㉡은 전개 1, ㉢은 전개 2에 활용할 수 있다.

- 13 해원이의 모듬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 바라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4 (가)는 발표의 도입 부분으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발표 주제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 15 ㉠은 발표의 정리 부분으로, 발표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청중은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16 (나)에서 해원이의 모듬이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지저분한 장소라고 답한 학생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명태 살리기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8 제시된 사진과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좀 더 쉽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9 ㉡에서 최근 연구 결과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 20 (다)~(마)는 청소년의 빠른 식사 시간 실태, 식사를 빨리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단원 마무리 체크

p.89-90

- 01 언어, 시각 02 효과적, 흥미 03 매체, 표현 방법 04 (1) 적절 (2) 효과 05 달콤 창고 06 낯선 흐름 07 고통 08 비인간적, 이기적 09 가치, 합리적 10 반성, 이타심 11 관심, 생생, 한눈, 공감, 증가, 증가, 늘어났음, 늘어났음 12 (1) 의문형 (2) 이기적 (3) 점층적 13 (1) 실천 행위 (2) 비유적 14 자료, 구성 15 (1) ○ (2) × (3) ○ 16 매체 자료 17 청중, 내용 18 판단 19 판단, 비판적 20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21 도입, 전개, 정리 22 방법, 실천, 실태 23 매체 자료 24 (1) ○ (2) ○ (3) × 25 ㉠, ㉡, ㉢, ㉣, ㉤ 26 (1) ○ (2) × (3) × (4) ○ 27 (1) 도입, 핵심 정보 (2) 정리, 확인



01 ① 02 ③ 03 ④ 04 ① 05 ⑤ 06 (나)의 글쓴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모두 농민으로 설정했다. 이는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민이 함께 농사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듣는이가 이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②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③ 15 ③ 16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애정/관심)가 거절당하자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분했다. 17 ① 18 ⑤ 19 ④ 20 ③ 21 (노란) 동백꽃 22 ⑤ 23 ④ 24 ② 25 '나'와 할머니는 흙을 모든 생명의 모태로 바라보고 있다.

- 01 말하는 이와 시의 운율 형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02 1연의 말하는 이는 과거 어린 시절의 '나'이고, 2연의 말하는 이는 현재 어른이 된 '나'이다.
- 03 '고요히 빗소리'는 빈방에서 홀로 흐느끼는 말하는 이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고조시키는 소재이다.
- 04 (나)에서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5 (나)는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일하고 상부상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06 (나)에서 말하는 이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말하는 이를 농민으로 설정하면 듣는 이, 즉 청자인 농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며 농사일을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 07 (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 08 말하는 이는 고향을 떠나 타향인 북관에서 혼자 앓아누워 어느 아침에 의원을 만났다.
- 09 '먼 옛적 어느 나라'는 말하는 이가 의원의 외모를 보고 느낀 인상을 나타낸 것이다.
- 10 말하는 이는 의원의 파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또는 아버지처럼 여기는 이)를 떠올렸기 때문에 파스함, 반가움, 친근함 등의 정서를 느꼈다.
- 11 (나)의 말하는 이는 간절히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고향에서 상실감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말하는 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12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을 떠나 있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돌아왔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가)의 말하는 이는 타향인 북관에서 지내고 있다.
- ②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인식이 달라 지지는 않았다.
- ④ (나)의 말하는 이는 이미 고향에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대해 친근감, 그리움을 느끼고, (나)의 말하는 이는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낀다.

- 13 이 소설에서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는 사건을 전개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4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나'로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 15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호의를 드러내며,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 16 점순이의 눈물에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야속함과 서운함,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한 것으로 인한 수치심과 원망, 자존심 상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있다.
- 17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닭싸움을 붙인다.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한 '나'는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이를 미워하게 되어 둘 사이의 갈등은 점차 고조된다. 따라서 닭싸움이 작품 속에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 18 '나'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점순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 19 '나'가 고추장 물을 먹고 빠드러진 닭을 꿰매다 감추는 것은 아버지가 볼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므로, 이를 통해 아버지가 점순이네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
- 20 <보기>는 점순이를 서술자로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점순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점에서는 점순이의 내면 심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점순이는 작품 속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작품 밖 인물로 서술자가 교체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점순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강화된다.
- ④ <보기>는 점순이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⑤ 수탉의 죽음에 당황해하는 '나'의 심리는 (나)에서 더 자세히 드러난다.

- 21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통해 '나'와 점순이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긴 풋풋한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다.
- 22 글쓴이는 흙(자연)과 가까이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골 생활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3 (마)에서 '나'는 현대인들의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기 위해 서는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4 글쓴이는 흙을 멀리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할머니와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 25 글쓴이와 증조할머니는 모두 흙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모태로 여기며 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01 ⑤ 02 ⑤ 03 ⑤ 04 ㉠: (웃음이 나는) 간지럼, ㉡: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05 ① 06 ③ 07 ② 08 ③ 09 ㉢에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10 ① 11 ㉠, ㉡ 12 (나) 13 ① 14 ③ 15 (다)와 (라)의 순서를 바꾼다. 16 ③ 17 ④ 18 ㉠: 그래서(그러므로, 따라서), ㉡: 또(또한) 19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③ 21 ② 22 ①, ③ 23 ⑤ 24 ⑤ 25 <보기>와 같은 예시가 사용된 문장은 '의뢰인의 겉모습만 보고 ~ 잘 드러나는 예이다.', '예를 들어 문학이나 ~ 사실을 모를 정도이다.'이다.

- 01 이 글은 간지럼의 특성과 간지럼을 타는 이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므로,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 02 (라)에서 간지럼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가려움 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3 (나)에서는 간지러운 느낌을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 04 (나)에서 알 수 있듯이 간지러운 느낌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으로 나눌 수 있다.
- 05 척추 손상으로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타는 1990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이 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글에 제시된 정보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07 (나)는 예측이 가능할 때 소녀의 반응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 08 (나), (다)를 통해 간질이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간지럼을 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9 ㉠에서는 내가 나를 간질일 때 간지럼을 타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예측,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그러나 간지럼은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중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11 이 글은 머리카락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으로, (나)에서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 ㉡ (다)에서는 예시의 방법으로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제시하고 있다.
㉢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 12 제시된 자료에서는 머리카락의 구성과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문단은 (나)이다.

- 13 (나)의 마지막 문장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 한다.
- 14 (다)의 '따라서'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하려면 '또(또한)'로 수정해야 한다.
- 15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의 구조와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순으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다)와 (라)의 순서를 바꿔 써야 한다.
- 16 이 글은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문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글쓴이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는 것은 논설문을 쓰는 방법이다.
- 17 이 글에 좋은 머릿결과 나쁜 머릿결의 특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①, ③은 각각 분석과 정의로 (나)에, ②는 인과로 (다)에, ⑤는 예시로 (라)에 사용되었다.
- 18 문장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글의 흐름에 맞는 접속어를 사용해야 한다. ㉠의 앞 문장은 원인, 뒤 문장은 결과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등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은 뒤 문장이 앞 문장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습관의 예에 해당하므로 '또, 또한' 등의 연결어가 들어가야 한다.
- 19 <보기>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 글을 고쳐 쓸 때에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는지,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색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20 ㉢은 지금까지 설명한 머리카락 손상의 의미,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문장이다.
- 21 (나)에서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22 글쓴이는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은 성향의 차이일 뿐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답을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다.
- 23 (나)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사고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다.
- 24 ㉠에는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은 분류, 구분, ②는 예시, ③은 분석, ④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25 <보기>에서는 만두가 활용되는 다양한 요리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가): 세대, (나): 문화 06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고모의 말은 ‘쌀을 사서(쌀을 사다)’이다. 주연이가 고모의 말을 잘못 이해한 이유는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07 ① 08 ②, ③ 09 ⑤ 10 ④ 11 ②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① 17 ④ 18 ④ 19 ③ 20 ④ 21 ② 22 ② 23 ④ 24 ① 25 ④ 26 ㉠: [구지], ㉡: [가치]

- 01 상황 맥락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이다.
- 02 (가)와 (나)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 공간과 같은 상황 맥락이 다른 것이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것은 아니다.
- 03 제시된 담화는 지각인지 아닌지를 걱정하며 묻는 성현이의 질문에 민지가 5분 남았으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 04 제시된 대화에서 민지의 ‘5분 남았는걸.’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탁구를 치러 나가기 어렵다는 ‘거절’의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놀이동산에 가자는 제안에 ‘학교 숙제가 있어.’라고 말하며 놀이동산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⑤가 ①의 의도와 가장 비슷하다.
- 05 (가)와 (나)를 통해 세대와 문화가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의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 07 ①의 앞에서 해설자가 떡볶이의 맛에 대해 물었으므로 통일성을 고려하여 떡볶이의 맛과 관련된 대답을 해야 한다. 순대의 맛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담화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 08 지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담화를 이루는 문장들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담화의 짜임새를 높일 수 있다.
- 09 205호에 사는 서현이가 305호에 사는 이웃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중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 10 (나)에서 서현이는 시험 기간인 다음 주만이라도 중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저희 아이들 때문에 시험을 망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1 ‘꽃피이, 웃음, 길이, 돌아왔다’는 어법에 맞게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고, ‘기분도’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12 ‘밖에[바깥]’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

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ㄱ’은 제 소릿값으로 발음된다.

- 13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면 겹자음 중 뒤엷것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② 앓아[안자], ③ 넓고[널꼬], ④ 읽지[익찌], ⑤ 밟다니[밥:따니]가 올바른 발음이다.
- 14 ‘꽃’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 15 ‘부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 이어졌으므로 [부어가네]로 발음해야 한다.
- 16 겹받침 ‘ㄹ’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용언일 때에는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용언이면서 ‘ㄱ’과 만난 ㉠은 [불께], 자음과 만난 ㉡은 [북찌],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뜻이 없는 말이 이어진 ㉢은 [불근]으로 발음해야 한다.
- 17 표준 발음법에 따라 ‘있다’는 [인따]로 발음해야 한다.
- 18 ‘희망찬’과 ‘떠어쓰기’는 ㉠에 따라 각각 [희망찬], [떠어쓰기]로 발음하고, ‘의사’는 ‘의’가 단어의 첫음절이기 때문에 ㉡에 따라 [의사]로 발음하고, ‘우리의’는 ㉢에 따라 [우리의/우리애]로 발음한다.
- 19 겹받침 ‘ㅃ’은 앞엷것이 발음되므로 ‘넓다’에서 ‘넓’은 [널]로 발음된다. 다만, ‘넓적하다, 넓둥글다, 넓죽한’은 각각 [넙찌카다], [넙둥글다], [넙쭈칸]으로 발음된다.
- 20 ‘예, 레’ 이외의 ‘ㄹ’을 [ㄱ]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례’는 [차레]로만 발음된다.
- 21 ㉠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거시지]로 발음해야 한다.
- 22 ‘순두부찌개’, ‘건드리지도’, ‘육개장’, ‘일찍이’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23 (가)에서 대화 참여자는 레오와 엄마이며,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레오와 엄마의 대화 주제가 달라서 레오와 엄마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4 ㉠은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 싱크대 안, ㉡은 레오가 가리키는 싱크대 안 밸브, ㉢은 레오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땠다고 물어본 것을 가리킨다.
- 25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할 때에는 ‘ㅎ’과 뒤 음절의 첫소리가 합쳐져서 [ㅋ, ㅌ, ㅊ]으로 발음되므로 ‘이렇게’는 [이러께]가 올바른 발음이다.
- 26 ‘굳이’는 ‘ㄷ’ 뒤에 ‘ㅣ’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ㄷ’이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되고, ‘같이’는 ‘ㄷ’ 뒤에 ‘ㅣ’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졌으므로 ‘ㄷ’이 ‘ㅊ’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



01 ① 02 ③ 03 ③ 04 ② 05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과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했다. 06 ④ 07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08 ④ 09 공정한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친 물건을 선택하는 착한 소비가 투표용지와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림을 추가하면 (마)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 ⑤ 11 ③ 12 '1.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 2.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 3. 우리 모두가 실천한 활동'으로 발표 순서를 바꾼다. 13 ⑤ 14 ② 15 ① 16 ② 17 ⑤ 18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꽃을 심었다.(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꽃밭을 만들어 가꾸었다.) 19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20 ② 21 ③ 22 2년 전 방류한 명태의 유전 정보와 일치한다. 23 ⑤ 24 ④ 25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정확한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다.

- 01 (가)에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으나, 이것이 글쓴이가 실제 실험한 것은 아니다.
- 02 <자료 1>과 같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03 (마)에서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퍼센트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4 남을 이기기 위해 밝고 올라서는 무한 경쟁의 시대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관련 있다. ㉠, ㉡, ㉢, ㉣은 이타심과 관련 있는 것이다.
- 05 (라), (마)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과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06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보충하기에는 전국 기부 가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나)에서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든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여태까지 인간의 본성으로 여겨 왔던 것이다.
- 09 제시된 그림은 공정한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을 투표용지에 비유한 그림으로, 이와 같은 그림을 제시하면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0 (다)에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되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11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 주제와 발표할 내용,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한 내용 구성, 활용할 매체 자료에 대해 계획한다.
- 12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해원이 모두의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언급한 후,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모두가 실천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3 (나)에서 발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 순서를 알 수 있고, (다)에서 발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 또한 (라)에서 학교가 더러워진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 14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 주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면 학교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5 해원의 모두는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제시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16 (나)에서 사람들은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 광고지를 더 많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 (나)에서는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을 담은 사진과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지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18 해원의 모두가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꽃을 심은 결과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 19 ㉠은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중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20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1 '반가운 소식'은 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의 하나로 2년 전 방류한 인공 1세대 어린 명태가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바다에서 명태 자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2 (나)에서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명태와 2년 전 방류한 명태의 유전 정보가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3 ㉡은 학생들이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하자는 발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4 (다)~(마)의 발표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밥을 빨리 먹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천천히 즐겁게 식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25 우리 반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표로 제시하면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다.